건배사도 '통통통' '새인말'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제3117호 www.metroseoul.co.kr

로맨틱 코미디 '수난 시대'

재벌 2·3세 행보… '지탄'과 '귀감'

"지적 당연하다" 변명하다 사과문 역풍에 여론 사퇴

코오롱 붕괴사고 잘 수습 '이부진 택시기사' 칭찬 글 SK회장 자녀 장교 임관

'땅콩 리턴' 사태로 본 '노블리스 오블리제' 현주소

조현아 / 이웅열

이부진

최민정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이 진실공방 등 후폭풍을 몰고오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재벌 총수와 오너 일가의 대응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특히 시청자들의 과거 향수를 자극하며 뜨거운 반응을 몰고 온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성공과 달리, 경영권 위기를 몰고 왔던 1997년으로 돌아간 대한항공의 잘못된 위기대응 방식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벌가 3세의 각기 다른 행보에도 사회의 시각이 엇갈리며 주목받고 있다.

◆대한항공 vs 코오롱

대한항공은 사건이 처음 보도된 이후 8일이 돼서야 뒤늦게 입장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기내 서비스를 책임진 임원으로 조 전 부사장의 문제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한 사과문은 더 큰 비판을 불러왔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사과문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무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대로 지난 2월 10명의 사망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당시 코오롱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고수습에 나서 기업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2월 17일 밤 사고가 난 직후 보고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곧바로 달려갔다. 이 회장이 다음날 경주로 갈 것으로 예상했던 코오롱 임직원들도 이러한 빠른 결단에 놀랐다는 후문이다.

또 대한항공은 사과문 발표 후의 대응도 코오롱과 비교된다.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9일 조 전 부사장의 보직 사퇴를 발표했다. 이런 조치도 '기내서비스와 호텔사업부문에서만 손을 떼고 대한항공 부사장직과 등기이사 자리는 그대로 유지해 '무늬만 사퇴'라는 논란에 시달렸다. 진정한 반성없이 여론이 시끄러우니 잠시 떠난 이후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하겠다는 '보직사퇴'에 대해 사회 여론의 거센 비판만이 쏟아졌다.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조 전 부사장은 결국 부사장직을 포함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이웅열 회장은 사고 다음날 오전 "깊이 사죄한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고수습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이 피해자 보상을 위해 사재까지 출연하는 등 코오롱은 이후 희생자 유족과 보상 협의에도 별다른 마찰없이 신속하게 보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1997년 225명이 사망한 괌 추락사고 2년만에 상하이공항 추락사고로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이 퇴진하고, 조양호 당시 사장은 사장직에서 물러나 대외업무만 수행했던 전력이 있음에도 대한항공측이 보인 위기관리 대응방식은 대기업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업계의 평가다.

◆ '갑질'과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번 '땅콩 리턴' 사태로 사회 지도층 인사와 재벌가 3세들의 '슈퍼 갑질'이 새롭게 회자되고 있다.

출발을 앞둔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쫓아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경우 이미 원정 출산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미국 하와이 원정출산 의혹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 3명을 고소했다.

또 '슈퍼 갑질' 사태로 부사장직을 이어받은 조 전 부사장의 남동생 조원태 부사장은 2005년 난폭운전으로 시비를 벌이다 손주로 추정되는 아기를 안고 있던 70대 할머니를 밀쳐 입건됐고, 2년 전 인하대 운영과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폭언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한진가의 막내 조현민 전무는 '진에어 승무원의 유니폼이 몸에 민망하다'는 트위터 글에 명예훼손을 거론해 비판을 받았고, 최근 한 방송에서 당시 회사 전무 발령과 관련해 "나 낙하산 인사 맞다. 실력으로 인정받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2면에 계속>

/김하식기자 k.md@metroseoul.co.kr

한국 증시와 글로벌 판세

기자 수첩
김현정
<금융시장부 기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먼 나라 국제분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판세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중국 증시까지 글로벌 랠리에 가세했는데 한국 주식시장만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도 일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중앙아시아 등지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하려는 시도 속에서 발생했다. 서방과 러시아가 에너지를 둘러싸고 또 다시 패권 경쟁에 돌입한 셈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과 터키는 오히려 EU 가입 의사를 밝히거나 추진하고 있어 유럽의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한 패널은 "EU가 '하나의 유럽' 완성을 넘어 근세 이후 세계질서를 이끌어 온 주도권을 되찾아가려고 한다"며 유럽의 확장세가 매우 적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스피는 '박스피'라고 불릴 정도로 수년째 제자리걸음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은 단기투자 성격이 강한 유럽계 자금보다 중장기 호흡을 보이는 미국계 자금이 유입될 때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회복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유럽의 영향력과 글로벌 다극체제로의 변화를 간과한다면 국내 증시의 중장기 성장도 요원해보인다는 점이다.

공동화폐를 사용하는 '경제 실험'과 전후 지역을 통합한 '정치실험'을 단행하면서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EU의 잠재력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박 대통령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침묵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파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與 싱크탱크 박세일 검토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이 단수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김무성 대표는 박 명예이사장이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알지만 실제 임명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현정 기자

박지만 EG 회장, 검찰 출석…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정윤회 미행설 질문엔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방문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 장을 전달했으며 박 회장은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우려와 함께 청와대에 이를 알렸다고 최근 보도했다.

당시 박 회장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 등은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이 박지만 EG 회장을 '정윤회 동향 문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박 회장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당시 박 회장이 본 문건은 자신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과 측근의 동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조현정 기자 jn@metroseoul.co.kr

최 경위 자살에 긴장 고조…파행 우려

여야 임시국회서 충돌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경제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국회가 15일 시작됐지만 여야는 첫 날 긴급 현안질문 여부부터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암시한 유서까지 남긴 것을 계기로 야당의 공세 수위도 한층 높아져 한달 일정의 임시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조,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 경제 법안의 최대한 처리 등 지난 10일 여야 간 '2+2' 회동에서의 합의도 자칫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문건이 사중 풍문을 짜깁기한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로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 이번 임시국회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 등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 의혹을 해소하면서 대안이나 방향 제시 중심의 생산적 현안 질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새정치연합은 최 경위의 자살과 관련, 청와대의 회유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청와대의 '하청수사'로 검찰이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강하게 요구하며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포함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폈다. /조현정 기자

재벌 2·3세 '지탄'과 '귀감'

<1면에서 계속>

이에 반해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보인 재벌 3세도 있어 사뭇 주목받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일명 '이부진 택시기사' 사건으로 한동안 누리꾼들의 칭찬 릴레이로 온라인을 뜨겁게 만든 바 있다.

'이부진 택시기사' 사건은 지난 3월 이부진 사장이 호텔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80대 택시기사에 호의를 베푼 내용이다. 당시 택시기사 홍 모 씨(62)가 낸 이 사고로 호텔 직원과 투숙객 등 4명이 다쳤고, 약 5억원의 피해가 났다. 홍 씨는 책임보험금 5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약 4억원 이상의 금액을 변상해야 했다.

이부진 사장은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에게 "그의 집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려운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고, 조사 결과 홍 씨는 낡은 빈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변상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를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피해는 사측이 해결하기로 하고 홍 씨를 상대로 한 4억원 변상 신청을 취소했다. 이를 통해 삼성그룹 이미지 상승은 물론 재벌가 자제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을 누그러뜨린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인 최민정씨가 지난 9월 재벌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해군에 자원입대해 장교로 임관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군 면제를 위해 국적포기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일부 사회 지도층 자녀들과 달리, 특권 의식을 버리고 여성임에도 군에 자원 입대한 사실로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SK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김두탁 기자 kim@

시식비 떠넘긴 롯데마트

납품업체에 전가…공정위 과징금 14억 부과 잠정 결정

대형마트에서 흔히 진행하는 시식행사. 손님들이 음식맛을 보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낼까.

알고보니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의 몫이었다. 마트의 이른바 '갑의 횡포'의 또 다른 예다.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롯데마트의 본 공중 심위에 대한 추가 계산와 확정 과징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14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1456회를 열고 소요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롯데마트는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대행업체를 섭외해 행사를 진행했지만 시식상품과 조리기구 일회용품, 시식행사 진행인력 급여 등 행사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시식 등 판촉행사를 할 때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

롯데마트 측은 "시식 행사는 매장 내에서 업체끼리 경쟁을 해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이익을 위해 떠넘겼다고 하기 어렵다. 협력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시식 행사 비용까지 일일이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15일(현지시간) 카페에서 인질들이 검은 바탕에 흰 아랍어 글씨가 쓰인 이슬람국가(IS)상징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보인다. /AP·연합뉴스

시드니 인질극 한국인 탈출

IS 추정 무장괴한 침입 카페 40여명 남아

15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도심 카페에서 인질로 붙잡혀 있던 한국 교민 여대생 배모씨가 탈출했다.

주 시드니 총영사관 관계자는 배씨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이날 오전 마틴플레이스의 린트 초콜릿 카페에서 일하던 도중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의 추종자로 보이는 무장괴한에게 붙잡혔다.

괴한은 인질들이 손을 들고 유리창 옆에 서 있도록 몰아 붙이는가 하면 검은색 IS 깃발이 외부에서 보이도록 카페 유리창에 매달아 놓으라고 협박도 했다. 중동계인지 등 괴한의 정확한 신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호주 국영 ABC방송 등에 따르면 손님 30여 명과 종업원 10여 명 등 40여 명이 인질로 붙잡혔으며, 이 가운데 배씨를 포함해 5명이 탈출에 성공했다.

사건 발생 직후 호주 경찰은 마틴플레이스 인근 도로와 주요 건물을 봉쇄했다.

토니 애벗 총리는 국가안보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애벗 총리는 "정치적 동기로 발생한 사건일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이지만 전문가들이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을 안심시켰다.

한편 이날 시드니의 관광명소인 오페라하우스에서도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돼 사무국 직원과 관광객들이 긴급 대피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9월 테러경보위험 수준을 '보통'에서 '높음'으로 올렸다. /조선미기자

오늘 눈 그친 뒤 '최강 한파' 15일 서울 광화문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다. 기상청은 16일 아침까지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특히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또 이날 아침 눈이 대부분 그친 뒤에는 강력한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진은 15일 서울 광화문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문산 고속도로 추진 '탄력'

환경영향평가 승인

지지부진하던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으로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환경부가 '고양시 국사봉 구간(1㎞) 휴게소 의좌 이전과 터널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으로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사봉 휴게소 이전 설치와 터널화 문제는 그동안 노선 갈등을 빚으며 3년간 착공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였다.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남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실시계획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 토지보상비 1000억원이 반영돼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목표한 대로 내년 6월 공사를 시작하면 2020년엔 도로를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주영기자

'개기다' '딴지' 포함 13개 항목 표준어로

삐지다(삐치다), '딴지'(딴죽), '개기다'(개개다), '허접하다'(허접스럽다) 등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했음에도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하던 어휘들이 표준어 대열에 끼었다.

국립국어원은 이같은 어휘 13개 항목을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4년 표준어 추가 사정안'을 발표하고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이를 반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삐지다(삐치다), '눈두덩이'(눈두덩), '구안와사'(구안괘사), '초장초'(작장초), '굽신'(굽실) 등이다.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에 따라 기존 표준어(괄호 안)와 새 표준어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다.

특히 '굽실'과 더불어 '굽신'도 표준어로 쓸 수 있게 된 만큼 이 단어를 사용한 '굽신거리다' '굽신대다' '굽신굽신' 등도 함께 표준어로 인정됐다.

한편 국어원은 'RADAR'의 한글 표기인 '레이더'는 원어 발음이 r로 끝나는 점을 반영, '레이다'를 새로운 기본 표기로 인정하되 지금까지 써 온 '레이더'도 관용 표기로 함께 인정키로 했다. /유주영기자

공중전화 비우고 신호등·표지판 통합

서울시내 공중전화 부스와 우체통이 사라지고 제각기 난립한 신호등과 표지판 등이 한 기둥 아래 모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인도(人道) 10계명'을 15일 발표, 무질서하게 운영되는 30가지 종류 110만 개의 가로 시설물을 개선해 보행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공중전화 5666개 중 올해와 내년에 각 450개를 철거하고 우체통 2397개 중 올해 390개, 내년에 450개를 없앨 계획이다.

택시 승차대,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자전거 거치대 등도 이용객이 많지 않으면 옮기거나 철거한다.

시는 또 모으기를 위해 제각기 설치된 신호등, 교통 표지판, 가로등, 시설 안내 표지판, 폐쇄회로(CCTV)를 하나의 기둥에 모아 통합형 지주로 관리한다.

'빛추기'를 목표로 건널목 턱, 도로 돌출된 가로수 뿌리, 좁은 보도의 지하철 환기구, 인도 위 분전함도 정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건널목과 접한 인도가 위로 튀어나와 휠체어 등이 통과하기 어려운 1441곳을 정비했으며, 뿌리가 나온 가로수 99그루도 개선했다. 보도 폭이 좁은 환풍구 구간 22곳도 내년까지 환풍구 높이를 낮춰 보행로를 확보한다. /유주영기자

유흥업소 여직원 폭행 '슈퍼개미' 구속

주식투자로 100억원대의 자산가가 된 30대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유주영기자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湖北婆婆81歲跳傘

metro Brazil

Sudeste concentr
dos casamentos g

하루에 10쌍씩 동성 부부 신고

지난해 브라질에서 하루 10쌍의 동성 커플이 혼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등록된 동성 커플의 결혼 건수는 3701건에 달했다. 하루 10쌍의 동성애자가 법적으로 부부 인정을 받은 것. 조사 여수자는 브라질 전체 혼인 신고 수 1만 1037건 중 0.33%를 차지하고 있다. 혼인 신고를 한 동성 부부 중 52%는 여성이며 나머지 48%는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metro Franca

LeBonCein.fr · Sincère, elle
escarpins "trop moches"

지나치게 솔직한 판매 문구

프랑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봉쿠앵(leBonCoin.fr)에서 한 여성이 판매할 제품을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해 화제다. 많은 판매자들은 '멋진 최첨실 세련미' '정말 독특한 첫솔' 등 자신들이 쓰던 물품을 팔기 위해 온갖 사치인 표현을 갖다 붙였다. 그러다 이 여성은 판매 게시물의 제목을 '너무 작고 심하게 더러운 검은색 구두'라 라고 달았다. 극단적인 솔직함으로 물건을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82세 할머니가 스카이다이빙

3000m 상공 낙하 용감한 도전…"스릴 넘쳤다, 무섭지 않았다"

최근 82세 중국 할머니가 호주 멜버른에서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해 화제다.

노익장의 주인공은 후베이성에 살고 있는 민더위(閔德玉). 그는 "스카이다이빙은 스릴 넘친다. 나이가 많지만 한 번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민더위는 멜버른에 살고 있는 넷째 아들 승쩬핑의 집에서 1년간 지내기 위해 호주로 갔다. 탈이 시안 공항에서 배웅한 뒤 그는 혼자 비행기를 타고 청두를 경유해 멜버른으로 갔다. 9시간이 넘는 긴 여정을 문제 없이 해냈다. 그는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고 글자도 모른다. 하지만 기억력과 담력은 좋다"고 밝혔다.

민더위는 고혈압, 심장병 같은 성인병도 없이 건강하나 감기에 걸리는 일도 드물다. 받은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이 어머니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어머니는 항상 웃으며 넘긴다"고 장수 비결을 설명했다.

민더위는 우연히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됐다. 지난달 말 귀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승쩬핑은 어머니를 모시고 교외로 나갔다. 그러던 중 한 놀이동산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것을 보고 승쩬핑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놀이"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민더위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지"라며 관심을 보였다.

일 주일 뒤 승쩬핑과 민더위는 다시 놀이동산을 찾았다. 민더위는 동작 요령과 주의 사항을 듣고 비행기에 올랐다. 이어 안전요원과 함께 3000m 상공에서 낙하했다. 자유낙하 상태에서 그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수직으로 올라갔다. 40초 뒤 낙하산이 펼쳐지자 그는 두 팔을 펼으며 하늘을 나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뒤에 있던 안전요원은 엄지를 들어 보였다.

낙하한 후 민더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다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가끔 숨쉬기가 힘들었을 뿐"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민더위는 그날 놀이동산의 스타가 됐다. 많은 관광객이 환호했다.

그는 "아들이 나를 위해 5년 비자를 발급받았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다시 한번 호주에 가서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В музеях
хотят видеть
ярких людей

박물관 직원 의상 해리포터 청소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현대 예술 박물관에서 직원이 의상을 주제로 한 이색 전시회 '박물관의 형상'이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러시아의 여러 디자이너와 미술가는 박물관 직원의 이미지를 재해석해 의상을 만들었다.

전시회 큐레이터 마리아 코마로바는 "미술가들은 박물관과 직원에 대한 견해와 느낌, 경험 등을 자신만의 독특한 의상으로 표현했다"며 "박물관 직원의 모습을 의상이 창의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박물관 관리자와 책임자의 의상을 설작자에 비유, 다소 엄숙하게 표현한 전시 공간과 밝고 재미있는 이미지를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한 공간으로 나뉘었다.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의상은 다리 부분에 큰 방울이 여러 개 달린 것으로 표현했다. 이 작품을 만든 안드레이 바르테네프는 "가슴 부분에 촉수와 비슷한 주름 여러 개 매달고 다리 부분에도 거대한 방울을 달았다"며 "박물관의 여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설치 예술가 마리아 예피펜코는 박물관 걸레와 빗자루 등으로 청소담당 직원을 표현했다. 예피펜코는 "화려하고 밝은 색깔은 청소 직원의 평등한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관람객이 박물관에 오기 전에 청소를 시작하고 끝마치는 이들을 신비한 모습으로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반면 마리아 스미르노바야는 영화 해리포터의 마법사들이 입는 듯한 검고 긴 도포 형태의 의상으로 청소 직원을 표현했다. 스미르노바야는 "검은색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청소 직원을 의미한다"고 했다.

/두슬리나 카르포바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양휘부 케이블협회장 "합산규제 법안 통과 자신"

재송신료 갈등 '공동협의제'로 풀어야

IT Cafe

KT와 반(反)KT 진영간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앞두고 눈치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15일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을 만나 합산규제 법안 처리와 케이블 업계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합산규제 법안 통과 낙관적"

"합산규제 법안 통과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케이블TV 방송 사업자들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양 회장은 이처럼 낙관론을 펼치면서도 다만 정치권의 결정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을 대신했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특정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성방송은 제한이 없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모든 서비스를 유료방송으로 포함시켜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산규제 법안의 내용이다.

합산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KT의 현 상황이 최대 이유다. KT는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며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PTV와 위성방송 결합 서비스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내놓으며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KT의 IPTV와 위성방송을 합한 가입자 수도 어느새 28%를 넘어섰다.

KT의 가입자 추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합산규제 법안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KT가 가입자 3분의 1을 넘긴다면 사실상 가입자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방송법상 소유제한이나 겸영 금지 등 시장점유율 등 모두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의 다양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막상 KT는 공정거래법을 논하며 상한선 49%를 주장하는데 방송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특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15일 기자와 만나 케이블 업계의 미래에 대해 동네 밀착형 방송 체제로 탈바꿈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야 향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기자

특히 양 회장은 KT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 중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도 많다고 역설했다.

"KT는 합산규제 이야기가 나오면 'IPTV는 단순 플랫폼 사업자이지 방송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것이야말로 넌센스다. IPTV는 현재 200여개가 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 일부를 선택, 번호로 나열해 준다. 이 같은 방송 편성권이야말로 방송사업자의 역할인데 마치 단순 플랫폼 사업자인 양 주장한다면 IPTV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

◆지상파와 유료방송 '재송신료 갈등' 해법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 재송신료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서로간 입장차가 크게 엇갈리다 보니 협의점을 전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티브로드, 씨앤엠(CMB) 등 일부 케이블방송은 현재 지상파와 재송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상파 측은 현행 가구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400원까지 올려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IPTV·케이블업계 측은 현재 재송신료도 과다한 상황에서 인상을 위한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지금의 재송신료도 낮추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의 의견만 엇갈리며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양 회장은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IPTV·케이블·지상파가 모두 참여하는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견이 엇갈리면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하는데 대화 자체가 없으니 문제다. 최근 재송신료 협상 중인 MSO에서 지상파에 공문을 보내 공동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지상파 측에서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지상파 측에서 대화를 거절하면 어떻게 제대로된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나."

특히 유료방송업계는 현행 재송신료 280원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 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대해 양 회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양측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향후 블랙아웃 사태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정부가 개입해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영기자 ○○○@metroseoul.co.kr

케이블의 미래는?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케이블업계의 미래에 대해 동네 밀착형 방송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네 밀착형 방송이란 현재 케이블TV 방송사가 제공하는 지역 채널에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도입, 진일보된 모습을 말한다.

"현 시대에 신문이나 TV 모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전 국민들이 대형사의 콘텐츠를 모바일로 소비하고 있는 실정에 케이블TV도 뭔가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없으면 어려워질 것이다. 난 이런 시대에 케이블TV 업계가 동네 밀착형 방송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청자들이 각 지역별 소식을 파악하고, 이를 케이블 방송사로 전달하면 지역채널이나 N스크린 서비스를 통해 다시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떻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웃의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 시청자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방송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무기로 케이블업계는 한층 성장할 수 있다."

그는 케이블업계도 꾸준히 연구개발(R&D)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KLabs)을 통해 R&D 기능을 높이고 있지만 향후 혁신을 위해서는 보다 기능을 1단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블방송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젠 디지털로 변화를 모색,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재영 기자

허창수 전경련 회장 결식아동 봉사

SK 설립 '행복도시락' 격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15일 SK가 설립을 지원한 '행복도시락 1호점'을 찾아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을 함께 만들고 배달했다.

이날 허 회장이 방문한 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행복도시락'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SK의 지원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이번 방문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 준비로 바쁘게 움직이는 '행복도시락'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문석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동반성장위원장, 최갑종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환담하고 '행복도시락'의 운영현황을 청취했다.

허 회장은 "SK그룹만 보더라도 10년 가까이 사회적 기업에 묵묵히 지원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 기업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사회공헌에 꾸준히 매진해오고 있다. 좋은 일도 하면서 경제적 성과도 이뤄낸 '행복도시락'이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행복도시락'에 결식아동들의 방학 중 급식비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5일 서울 신당동 행복도시락 센터에서 결식 아동들에게 배달될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오른쪽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전경련 제공

허 회장은 "날씨가 추워지고 방학이 시작되면 결식아동들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될 텐데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허 회장은 결식 아동들을 위한 저녁 도시락통에 직접 반찬을 옮겨 담는 등 포장 봉사를 펼치고 인근가구를 방문해 전달하기도 했다.

행복도시락은 2006년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맛있는 도시락을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SK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SK는 위생·조리시설 등 설비투자와 함께 초기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도시락 품질 향상을 위한 매뉴얼 제공과 교육은 지금까지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행복도시락'은 전국 28개소에서 하루 평균 1만2000여명의 결식이웃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370여명의 일자리도 만들었다. 이 중 75%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다. /박상훈기자 ○○○

NAVER vs Daum "모바일 1위는 우리"

쇼핑·결제·메신저 등 내년 사업 개편 박차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바일 신규 사업으로 내년 도약을 꿈꾼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출범 초기에 터진 각종 악재를 딛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모바일 메신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방지 협의로 서자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0월 13일에는 다음카카오 출범 2주만에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대이용자 사과를 해야했다.

업계에서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다음카카오의 내년 매출액이 1조원대, 영업이익은 3000억원을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카카오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안재민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다음카카오가 합병을 마무리하며 신규 사업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며 "내년에는 그동안 준비했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들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카카오 게임하기 영향력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카카오스토리 등의 트래픽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모바일 광고 매출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의 다양한 신규 사업 중 모바일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모바일 쇼핑 플랫폼 '카카오픽'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윤경 키움증권 책임연구원은 "모바일 쇼핑이 PC인터넷 쇼핑보다 고수익 상품 판매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오프라인 유통보다 모바일 쇼핑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내년에 모바일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는 다음카카오 출범에도 불구하고 70% 후반대의 압도적인 PC검색 점유율을 지키고 있으며 라인의 해외 가입자 증가 추이도 매섭다. 라인은 해외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네이버 영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섰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과 달리 네이버의 모바일 비즈니스 기반은 취약한 상태다. 네이버는 지난 3분기 매출 7000억원, 영업이익 1890억원을 기록했는데 실적 대부분이 PC부문과 라인에서 나왔다. 더욱이 국내 매출은 조금씩 떨어지는 상황이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의장은 최근 춘천연수원에서 열린 임원 워크숍에서 "네이버가 PC에서는 1등일지 몰라도 모바일에서는 꼴찌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 모바일에서 네이버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며 모바일 사업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제만 연구원은 "라인의 경우 내년 말 가입자가 6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가치는 24조원에 달해 기업공개(IPO)도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포털 업계가 모바일 중심으로 사업을 완전히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윤희기자 jyh@metroseoul.co.kr

은행권 대출자 1050만명 넘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借主)가 올해 상반기말 10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주의 1인당 부채액은 4600만원을 돌파해 연말에는 5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권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의 차주는 1050만8000명이며 이들의 부채합계는 487조7000억원이다.

은행권 차주는 지난 2012년 1045만1000명에서 2013년 1043만6000명으로 감소됐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을 차주 수로 나눈 1인당 부채액은 2010년 4261만원에서 2012년 4471만원, 2013년 4598만원, 올해 6월말 4641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더욱이 차주 증가와 1인당 부채액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는 더욱 빨라졌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8월을 기점으로 11월말까지 월평균 5조5000억원씩 늘고 있다. 12월 들어서도 이런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고 부채액이 증가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민지기자 mans@

1920선 지킨 코스피 국제유가 급락과 엔저, 러시아 루블화 폭락 등 투자심리 악화로 15일 코스피는 장 초반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으나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전 거래일보다 1.35포인트(0.07%) 내린 1920.36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친환경차 메이커로 자리잡겠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

현대차와 기아차가 15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정몽구(사진) 현대차그룹 회장 주재 아래 하반기 해외법인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해외법인장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올 한해 지역별 실적 및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생산·판매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정몽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양사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내년 글로벌 전략을 점검했다.

올해 현대·기아차는 연초 수립한 목표(786만대)를 14만대 초과한 800만대 판매가 확실시 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회의석상에서 "800만대에 만족하기엔 갈 길이 멀다"며 800만대는 새로운 시작이며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시장 환경에 대해 "세계 경제의 저성장, 엔저 가속화, 미국 금리 변동과 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 자동차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회장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뿐"이라며 "성과에 취하거나 불안한 세계경제 전망에 위축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정몽구 회장은 "내년은 현대·기아차의 새로운 친환경차들이 글로벌 주요 시장에 선보이는 중요한 해"라며 "철저한 준비로 세계적 친환경차 메이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11월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725만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692만대) 대비 4.8% 포인트 증가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 2.9% 포인트 늘어난 103만대를 판매했다. 해외에서는 중국의 두 자릿수(10.6% 포인트) 성장률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미국 등 주요 지역 고른 성장세 속에 지난해보다 5.1% 포인트 높아진 621만대 판매를 기록했다.

/이혜택기자 foror@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코스닥
1920.36 (-1.35)	535.09 (+4.42)

금리	환율
2.12 (+0.01)	1093.10 (-2.80)

뉴스&뉴스

베트남 실시간 해외송금 15일 서울 중구 충정로에 있는 NH농협은행에서 베트남 실시간 해외송금을 개시하면서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 공채 비법 앱으로

●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인 삼성 채용제도를 스마트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만든 어학·취업·직무·경력개발 스마트러닝 앱 '잡코리아U'는 '2015 삼성 채용제도 개편의 진실' 강좌를 업데이트했다고 15일 밝혔다.

'2015 삼성 채용제도 개편의 진실'에서는 '삼성은 독종을 원한다'의 저자 김기주 전 삼성전기 인사기획부장이 출연해 삼성 공채 합격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준다. 삼성 채용제도 개편의 전반적인 내용과 삼성이 원하는 창의적 인재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한편 잡코리아U에서는 현재 공채 준비에 필요한 모든 강좌를 잡코리아U 앱만 다운받으면 100%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31일까지 실시 중이다. /이유미기자 lee@

라인, 사진 공유 업데이트

● 스마트폰 사진 공유가 보다 손쉬워 졌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은 스마트폰 콘텐츠 관리 서비스인 '토스'의 공유 범위를 라인 친구에서 연락처 등록 전체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스 이용자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수신인의 앱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연락처에 등록된 친구 누구에게나 편리하게 사진을 보낼 수 있다. /정윤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illegible] TEL 02)721-9800 FAX 02)730-1551
편집인·발행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단호
광고문의 02)721-9851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 [illegible] 서울특별시 가00016

금융권 임직원 200여명 징계

당국, 내년 초 제재심의위 열어 확정… 모뉴엘 사태 영향

금융감독 당국이 내년 초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를 잇따라 단행할 예정이다. 징계를 받는 금융권 임직원이 200여명에 달할 전망이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과 이달 검사를 끝낸 KT ENS 대출 사기, 모뉴엘 파산,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등 금융사고 건에 대한 서류 검토 작업을 마치고서 내년 1~2월 중에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파산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10여개 금융기관을 검사하면서 부실심사 사례를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원 규모로서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1253억원), 수출입(1135억원), 외환(1098억원), 국민(760억원), 농협(753억원), 기타(261억원) 순이다.

이 가운데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총 3860억 수준이니, 담보가 없어 변제 가능성이 낮은 신용대출도 2908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감원과 검찰 수사 결과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일부 임직원이 모뉴엘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 탈법 사례가 드러났고 부실 대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업계에서는 모뉴엘 관련 수십명의 금융권 임직원이 징계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KT ENS의 3000억원대 대출사기사건에는 하나 국민 농협은행과 13개 저축은행이 부실대출과 불완전판매에 연루됐다.

징계 대상자 선정작업을 마치면 100명에 가까운 임직원에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손실액이 1600억원에 달하는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직원들의 불법 계좌조회로 인한 제재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가까웠던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금감원은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했으며 야당과 참여연대의 지난 10월 조직적인 개인정보 조회 의혹 제기에 추가 검사도 진행했다.

/김형철기자 h.kim@metroseoul.co.kr

농협금융제공

대표투자상품 브랜드 '올셋'으로

NH농협금융이 자산운용 전문 금융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투자상품 브랜드 '올셋(All set)'을 내놨다.

15일 농협금융은 이날 오후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금융계열사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금융 대표투자상품 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표투자상품인 올셋은 '새로운 희망, 완벽한 준비'라는 의미로 ▲환경변화 대응 ▲고객 니즈 [illegible]형 ▲신시장 개척 ▲차별화된 투자 상품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다.

농협금융은 내년 중으로 모두 14종의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6종의 상품은 1월 2일에 출시된다.

상품은 NH-CA자산운용에서 펀드로 개발 운용 하고,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NH CA자산운용과 계약을 체결한 은행과 증권사에서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은 "대표투자상품 올셋 펀드는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핵심상품으로, 농협금융이 자산운용 전문회사라는 이미지를 시장에 각인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협금융은 자산운용 명가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이란기자 [illegible]

어린이 300명에게 '희망 부츠'

ING생명, 공연도 초청

ING생명은 지난 13일충무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킹키부츠' 공연에 CJ도너스캠프 공부방 어린이 300명을 초청하고 '희망 부츠' 300켤레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 부츠' 선물과 뮤지컬 관람 행사는 'ING생명 마이 킹키부츠 드림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회사는 이번 캠페인에 앞서 공모를 통해 모금된 네이버 해피빈과 자선바자회로 조성된 기부금 등을 더해 총 1억5000만원을 후원했다. 전달된 부츠는 성동제화협회 '구두의 장인'의 재능기부 협찬으로 제공됐다.

이날 어린이들이 관람한 뮤지컬 '킹키부츠'는 부츠 하나로 인생을 바꾼 주인공의 실제 성공 스토리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담겨있다.

박익진 ING생명 부사장은 "온라인 기부, 자선바자회, 부츠 제작 협찬 등 어린이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였다"며 "오늘 전달된 부츠가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뿐만 아니라 함께 관람한 뮤지컬 '킹키부츠'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illegible]

생보업계 최초 콜센터 상담시간 토요일까지 확대 한화생명은 15일부터 콜센터 고객 상담업무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제공

신한금융,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억원 신한금융그룹은 15일서울시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이웃사랑 성금 50억원을 전달했다. 한동우 회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성금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한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과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허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신기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공동모금회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제공

아베, 총선 압승…엔저 가속화되나?

내년 상반기까지 엔·달러 125엔대 유지할 듯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엔화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가와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온 아베의 선거 압승으로 당분간 일본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집권 자민당은 전체 의석 475석 가운데 290석을, 공명당은 35석을 각각 얻었다. 이는 연립여당 차원에서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이로써 아베 총리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시장은 "아베가 선거에 압승함으로써 그간 추진해온 세 개의 화살"에 계속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가 강한 일본 경제 재건을 기치로 꺼내든 '세 개의 화살'은 금융완화·재정확대·구조개혁이다.

NLI 연구소의 우에노 츠요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아베가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에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따라서 선거 압승이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뒷바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재용 하나대투증권 팀장은 "일본은행(BOJ)이 내년 초반까지 자산 매입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2분기까지 엔저가 이어지며 엔·달러는 123~125엔을 유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석찬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도 "엔화 약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엔·달러는 125엔까지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일본이 지속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유지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승현 대신증권 전략실장은 "완화정책을 끌고 가려면 실질 물가 상승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충분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화가 약세를 지속할 수도,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면서 "적어도 환율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illegible]

증시 상장·공모주 청약 30곳

이번주 제일모직등 12개 종목·투자 열기 고조

이번주 국내 증시가 신규 상장 종목과 공모주 청약으로 들썩일 전망이다.

정규시장에는 제일모직을 포함한 12개 종목이 입성한다.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기업은 무려 17개사로 올 들어 주간 단위로 최다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오는 18일 제일모직이 상장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는 이날 비씨월드제약, 16일 에이디테크놀로지, 엔지노믹스, 17일 케이사인, 디티앤씨, 녹십자엠에스 등 6개사가 새로 이름을 올린다.

코넥스시장에는 이날 엠지메드, 16일 이김프로덕션, 17일 세종메티리얼즈, 18일 소프트캠프, 에듀케이션파트너 등 5개사가 새로 상장한다.

이 가운데 15일 첫 상장한 종목들의 주가는 공모가 보다 높게 형성되며 선방했다.

코스닥시장에서 비씨월드제약의 시초가가 1만8100원에서 형성되며 공모가 1만5700원을 웃돌았다. 액면분할로 변경상장하는 바이오 업체 엠지메드는 코넥스시장에서 상장 첫날 상한가(1만6300원)를 기록했다.

이번주 공모주 청약에 나서는 기업 수는 더 많다.

15~16일 휴메딕스·오킨스전자·뉴 이스트·아이티센·라이섬·서전기전 등 10곳, 16~17일 이즈월, 17~18일 KB제6호스팩·현대드림투게더제2호스팩 2곳, 18~19일 세화아이엠씨·영백씨엠·국일신동 등 4곳으로 총 17개사다.

상장 예비기업들이 지난주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을 피해 이번주 대거 일정을 잡았다.

시장에서는 30조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몰린 제일모직 청약에서 환급된 투자자금이 이번주 공모주 청약으로 유입될지에 관심을 둔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 공모 규모가 1조5237억원이므로 청약에서 환급되는 자금은 28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어 새로 청약을 받는 종목들이 흥행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SDS처럼 대어급 종목은 공모가 19만원을 훨씬 웃도는 30만원선에서 거래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 외 중소형급 종목들의 주가는 부진한 편이다.

연예기획사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에 이어 3년여 만에 공모시장에 등장해 이달 4일 상장한 FNC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2만8000원을 밑돌아 2만원선 턱걸이까지 내려왔다.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현물출자해 설립한 PI필름업체인 SKC코오롱PI는 지난 8일 상장한 이후 내리 공모가(8000원)를 하회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채팅으로 금융상담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은행은 15일 채팅을 통해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우리톡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우리은행 스마트금융 앱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제공

삼성화재 '당신의 봄' 광고에 차태현

삼성화재는 새 브랜드 '당신의 봄'의 첫 광고에 영화배우 차태현씨가 출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우리는 봐 당신을 봄, 제대로 봄'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봄날을 연상시키는 꽃 속에서 차태현이 화사하게 등장한다.

'당신의 봄'은 이 회사가 고객을 제대로 봄, 꼼꼼히 봄, 앞서 봄(Seeing)으로써 고객의 오늘을 지키고, 더 좋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돼 밝고 희망찬 봄(Spring)을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광고를 제작한 박찬규 제일기획 프로는 "따뜻하고 희망찬 봄처럼 모든 고객에게 행복을 선사하겠다는 삼성화재의 '좋은 보험'의 의미를 담아 올 겨울 추운 날씨를 힘겹게 보내시는 분들이 따뜻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이어질 후속 CF에서도 '당신의 봄'에 어울리는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마음에 봄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코드나인 추진팀 신설 등 조직 개편

신한카드, 전자지불결제시장 변화에 탄력 대응

신한카드가 코드나인 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15일 신한카드는 카드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조직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2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취임 이후 두번째로 나온 것으로 이날 임원과 부서장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가장 큰 변화는 신성장부문 내에 미래사업본부를 핀테크사업팀과 신사업팀, 글로벌사업팀으로 편제한 점이다.

핀테크사업팀안에는 간편결제파트를 신설해 전자지불결제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 거주 또는 여행 외국인 대상 비즈니스를 위한 글로벌사업팀도 새롭게 만들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전담키로 했다.

영업추진력 강화와 빅데이터 경영체계의 가속화를 위한 부서도 나왔다.

신한카드는 영업부문 내에 영업총괄본부를 신설해 영업추진력의 획기적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드나인(Code9)추진팀을 신설해 내년부터 코드나인 상품개발체계뿐 아니라 회원모집과 프로모션, CRM 기행점 등 전사적 마케팅 자원으로 확산키로 했다.

특히 위성호 사장의 트레이드마크인 빅데이터 경영체계의 가속화를 위해 기존 BD마케팅팀 외에도 BD컨설팅팀을 신설했다.

개편안은 또 기존 4부문 15본부 48팀 32지점 23센터 28파트에서 4부문 16본부 50팀 32지점 23센터 27파트 체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추진부문은 영업부문으로 변경해 카드 비즈니스의 본원적 영업 추진조직에 집중 배치됐다.

이밖에도 전략영업부문은 신사업 R&D와 부가수익 창출을 전담 추진하는 신성장부문으로 전환됐다. 경영기획부문과 경영지원부문은 각각 기획부문과 지원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해 모두 4개 부문 체제를 유지했다. /박지은기자 alison1206@

국민은행 사외이사 내년 3월 주총 때 전원사퇴

KB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이어 국민은행 사외이사들도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은행장과 간담회를 하고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외이사들이 구성되면 그때 각자의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사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은행 사외이사진은 김중웅 강희복 송명섭 조인호 사외이사 등 4명이 남았다.

오갑수 사외이사가 지난 9월 말 임기 만료를 맞아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고 물러났으며 박재환 사외이사도 지난달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중웅 전 이사회 의장도 지난달 의장직을 사퇴하면서 내년 4월 임기 만료 전까지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내년 주총 때까지는 사외이사직은 수행하기로 한 이유는 신임 사외이사를 선출하기까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KB금융지주 사외이사 7명 전원도 내년 3월 사임하기로 결정했다.

KB금융에 이어 국민은행 사외이사의 전원 사퇴 결정은 이달 말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승인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KB금융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KB금융 사외이사들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채신화기자 csh@

대신증권 DLB 1종·ELS 6종 출시 대신증권은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6종과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DLB) 1종 등 총 7종의 상품을 16~19일 나흘간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신증권 제공

B2B 강화로 신성장 동력 중점 육성

전자업계, B2C 시장 포화 돌파구 모색

전자업계들이 성장동력을 B2C(기업-소비자간 거래)에서 B2B(기업간 거래)로 옮기고 있다. 가전·모바일 등 B2C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가 중국 등 신흥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선전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B2B는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한번 거래를 체결하면 꾸준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10월 조직개편을 단행한 삼성전자는 전사 제품의 B2B를 담당하던 글로벌B2B센터를 재편해 영업 기능을 무선사업부로 전진배치하고 전략 기능은 글로벌마케팅실로 이관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DS(반도체+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모바일 B2B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모바일 보안 플랫폼 '녹스' 개발을 비롯해 B2B 전용 태블릿을 현장 업무에 활용하거나 모바일 기기에서 환자의 건강 정보에 접근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들이 대표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모바일 기기와 그에 연동된 솔루션인 만큼 무선사업부에 B2B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확충해 관련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대표적인 B2B 사업으로 꼽히는 빌딩제 디스플레이 시스템에어컨 등은 각 사업부와 해외법인에서 이어간다.

LG전자 역시 지난달 말 발표한 조직개편에서 각 본부별 직속으로 B2B 부문을 신설해 보다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LG전자는 그 동안 냉난방 시스템·상업용 디스플레이·자동차부품 등의 B2B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왔다. 옥외 광고 등에 사용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인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제품을 선보였으며 내비게이션·엔지니어링 등 차 부품 사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인천에 연구소를 세우기도 했다. 에어컨 사업도 공항이나 쇼핑몰 등 대형 시설에 쓰이는 냉난방 공조시스템인 칠러와 시스템 에어컨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B2B 역량을 강화하는 중이다.

해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기업간 협력을 통해 B2B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애플의 경우 IBM과 손잡고 기업고객을 위한 iOS용 솔루션인 'IBM 모바일퍼스트'를 최근 공개했다. 이 솔루션은 기업용 앱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고객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을 통해 IBM의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솔루션을 통해 기내 승무원이 특가 관세 재예약, 수하물 정보 등 개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패신저 플러스', 고객의 보험 가입을 돕기 위해 이력과 기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리텐션'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 가능하다.

/정혜인 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기업과징금 34% 증가한 4470억

올해 [illegible]·호남고속철 담합 등 사건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이 447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2월 현재까지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은 4041억원이다.

올해 연말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과징금은 432억원이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기업이 공정위의 심의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다.

올해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1243억원), 철강업체 강판 판매가격 담합(814억원),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시 담합(429억원) 등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들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다.

/박상훈 기자

포장박스 활용 이색 전시회 삼성전자는 28일까지 서울 서초동 딜라이트 홍보관에서 이색 미학생 디자인 전시 '리메이크 잇 미닝풀(Remake it Meaningful)'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가전제품 포장에 사용됐던 종이박스를 재활용, 일상생활에 가치를 더하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 제공

SK플래닛, 대학생 체험 '플리터' 모집

SK플래닛은 대학생 대상 체험 리포터 프로그램인 '플리터'의 3기 모집 접수를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플리터 3기에 선발되는 30명의 대학생 참가자들은 내년 3월부터 3개월간 활동비를 지원받아 SK플래닛 서비스의 영상·웹툰·리플렛 등 다양한 미션에 따른 체험기를 제작하게 된다. 특히 내용에 따라 포상 및 문화탐방 기회·SK플래닛 입사지원 시 혜택 등의 특전을 부여 받는다.

플리터 모집은 일반 전형과 공모전 전형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공모전 전형은 영상&디자인 및 기획&홍보로 나눠 참가자를 선발한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1등 200만원을 포함해 총 4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플리터 3기의 일반접수 및 공모전 접수 진행은 모집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16일 SK플래닛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G워치R' 언론 호평 불구 반응 '미지근'

LG전자가 야심차게 준비한 'G워치R'(사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LG전자의 'G워치R'은 세계 최초로 원형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클래식 디자인을 적용했다. 플라스틱 OLED는 가볍고 얇게 만드는데 보다 적합하고, 시야각이 넓어 색상이 선명하고 야외 시인성도 좋다. 덕분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G워치R은 최근 영국의 IT 전문 매체인 포켓린트로부터 '2014년 최고의 웨어러블 기기'로 선정됐다. 포켓린트는 업계 관계자와 저널리스트, 독자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매년 최고의 전자기기 제품을 선정한다.

포켓린트 평가단은 "G워치R은 전통적인 시계 디자인과 모던한 스마트워치 기능의 경계를 허물었다"며 "가장 스타일리시한 웨어러블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IT 매체들은 특히 G워치R의 디스플레이 성능에 주목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G워치R을 일컬어 "가장 갖고 싶은 테크 제품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스크린의 밝기나 해상도, 가독성 모두 뛰어나다. 손목에 알맞은 사이즈로 무겁지 않아 착용감도 훌륭하다"고 보도했다. 엔가젯은 "완벽한 원형 디스플레이와 개선된 배터리 수명이야말로 G워치R의 가장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제품 디자인과 성능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판매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장 반응은 차갑다.

LG전자의 G워치R을 보고 있으면 시대를 앞섰다는 느낌도 든다. 시대를 너무 앞서가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받은 제품들도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워치를 출시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며 "하지만 제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기자

한국인의 true friend
축
open

"스펙 안 보고 직무역량 평가로 뽑는다"

입사지원서·면접 일 관련된 것만 기재·질문
지적공사 "신입이 전문경력직 수준" 긍정 반응

LX대한지적공사는 올해 공채에서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활용해 입사지원서와 면접 방식을 크게 바꿨다.

출신학교와 보유자격증, 개인신상 등을 강조했던 기존 지원서를 없애고 역량지원서를 도입해 직무 관련 경험과 활동을 평가했다.

또 기존의 비구조화된 면접방식을 직무역량과 인재상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면접(경험면접, 상황면접)으로 바꿔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인재를 선발했다.

최규명 LX대한지적공사 인사부장은 "채용방식을 바꾸자 스펙으로 가려져 있던 직무능력과 조직적합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었다"며 "신입사원이지만 직무경험이 풍부해 별도의 교육없이 현장투입이 가능해 전문경력직을 뽑은 게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이 취업시장의 대세로 떠오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대한상의가 개발·보급하고 있는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에 대한 기업의 호응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대한상의가 시행하는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사업은 기업들이 학벌·스펙에서 벗어나 직무역량을 보고 채용할 수 있도록 인재평가모델을 개발·보급하는 것이다.

직무역량 평가모델은 크게 역량지원서, 역량면접, 역량테스트 등으로 구성된다.

역량지원서는 직무와 무관한 신체조건·거주지, 재산내역, 가족사항 등의 기재란을 없애고 직무관련 수강과목, 교내외 경험, 인턴 근무경험 등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항만을 기재한다.

면접도 과거 경험을 통해 직무관련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경험면접', 업무상황에 대한 상황판단능력을 알아보는 '상황면접' 도구를 서비스한다.

직무 모의상황으로 구성된 '발표', '그룹토의' 방식의 면접도구도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역량에 맞게 제공되며 신입직원의 조직 적응 인성과 직무에 필요한 적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직군별 인성검사와 직무적성검사(K-TEST)도 제공한다.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도입효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사업에 참여한 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0.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77.0%는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자격평가사업단장은 "직무역량 평가를 통한 채용방식이 보편화되면 5대 스펙(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을 넘어 8대 스펙(5대 스펙 + 봉사, 인턴, 수상경력)으로까지 증가한 구직자의 부담도 확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폭설 대비하세요!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릴것으로 예보된 15일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한 직원이 폭설대비 자동차용품을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가격 공개

한국 출시는 2015년 예정

S클래스 위에 자리할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차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코드명 X222·사진)'의 판매 가격이 공개됐다.

15일 다임러 측에 따르면, 곧 독일 시판에 들어가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00과 S600은 S500이 13만4053유로, S600이 18만7841유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두 모델은 우선 독일에서 주문이 가능하며 4륜구동 모델인 S500 4매틱과 S400 4매틱이 이어서 추가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00은 V8 4.7ℓ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을 얹고 최고출력 455마력, 최대토크 71.4kg·m를 뿜어내며, 메르세데스 벤츠 최초로 9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다. 같은 엔진을 얹은 메르세데스 벤츠 S500은 7단 자동변속기를 달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최고급 모델인 S600은 V12 6.0ℓ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530마력, 최대토크 84.7kg·m를 나타내며 7단 자동변속기를 얹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막내 모델인 S400 4매틱은 V6 3.0ℓ 가솔린 엔진을 얹고 최고출력 333마력, 최대토크 48.9kg·m의 성능을 나타낸다.

S500과 S600은 내년 2월 고객 인도가 시작되며 S500 4매틱은 4월쯤 인도된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성능 버전인 AMG 모델도 향후 추가될 예정이다.

마이바흐 출시와 관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홍보 담당 최윤선 부장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는 2015년에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라면서 "아직 가격이나 정확한 출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가 출시되면 국내외에서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마이바흐로 시판됐던 기존 모델은 심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바 있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

가스밸브 원격제어 간편하게!

LG유플러스, 홈IoT 서비스 'U+ 가스락' 출시

LG유플러스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집 안의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잠글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심 서비스 'U+가스락'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스마트 가스타이머는 원격 확인 및 제어가 어려웠고, 고객이 구매 후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 가스 전문 업체 설치에 의존해야 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제품의 취약점을 보완해 원격으로 가스밸브를 제어할 수 있고, 자사 서비스센터를 통한 방문설치 및 애프터서비스(AS)가 가능한 'U+가스락'을 선보였다.

U+가스락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으로 집 안의 밸브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밸브가 열려있을 경우 앱 내 밸브잠금 터치로 쉽게 밸브를 잠글 수 있다는 점이다.

가스밸브 주변온도가 높아지면 단문메시지(SMS)로 알림이 발송되는 화재감지 알림 기능으로 집안 내 혹시모를 화재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가스밸브 주변이 40℃, 55℃에 도달하면 경보음과 함께 SMS가 발송되고, 65℃가 되면 경고 알림과 자동으로 밸브가 차단된다.

LG유플러스는 언제 어디서나 집 안의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잠글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안심 서비스 'U+가스락'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또 타이머 설정 기능으로 외출 전 화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다. 타이머는 최소 2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디지털 타이머로 정확한 사용시간 설정이 가능하다.

하나의 앱에 가스락 4대까지 등록할 수 있어 우리집은 물론 가족·친지의 가스밸브 역시 제어할 수 있다. 앱 내 가족구성원 초대 기능으로 관리자 포함 총 10명까지 추가할 수 있어 온 가족이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illegible]

한불모터스, 5년여 만에 워크아웃 졸업

푸조와 시트로엥의 공식수입원인 한불모터스(대표이사 송승철)가 5년 만에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 관리)에서 졸업했다. 한불모터스 측은 15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전국 판매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해 2015년을 기점으로 더욱 높은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불모터스는 2009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2010년 이후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흑자를 이뤄 재무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또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상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해 5년 8개월 만인 2014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이번 워크아웃 졸업은 향후 수입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점과 푸조와 시트로엥의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했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졸업은 한불모터스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불모터스는 10월 29일 출시한 뉴 2008의 폭발적인 인기로 2015년부터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llegible] 기자

"아파트로는 안심 못해"… 사업다각화 '봇물'

지식산업센터·도시형생활주택 등 진출
상가·호텔 등 직접 운영 안정적 수익 확보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사업다각화 작업이 한창이다. 지식산업센터, 고급 도시형생활주택 등 틈새상품을 잇 다둬 선보이는가 하면, 단순 시공을 넘어 상가, 호텔 등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느는 추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견건설사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대형건설사가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내로라하는 1군 건설사들이 뛰어들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이미지도 획일적 아파트형공장에서 첨단오피스로 변신 중이다.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내 '문정역 테라타워' 분양에 이어 최근 '송파 테라타워2' 공급에까지 나섰다.

대우건설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각각 '송도 스마트밸리'와 '삼송 테크노밸리'를 지었다. 특히 '송도 스마트밸리'는 연면적만 29만1184㎡로 수도권 최대 규모이며, '삼송 테크노밸리'도 잠실주경기장 1.7배 크기를 자랑한다.

현대산업개발은 도시형생활주택 '한남아이파크 스위트 279'를 선보였다. 도시형생활주택 시장 역시 대형건설사보다는 중견건설사의 진출이 활발했다. 그러나 해당 단지가 고급 주거단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들어서는 것을 감안해 고급화된 상품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대림그룹은 대림산업 등 계열사와 함께 호텔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사진은 최근 대림이 오픈한 글래드 호텔 여의도 객실 내부

호반건설과 요진건설산업은 단지 내 상가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수익이라는 두 토끼를 좇는다. 호반건설은 판교에서 성공을 거둔 '아브뉴프랑'을 광교와 광명역세권에도 오픈할 계획이다. 요진건설산업은 고양 백석동 '요진Y시티' 상가를 직접 관리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호반건설의 아브뉴프랑은 성공적인 사업다각화의 사례로 꼽힌다"며 "매달 수억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챙겨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설사가 나서 브랜드 매장 위주로 유지한 만큼 상가 가치까지 높였다"고 평가했다.

호텔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도 있다. 대림그룹은 지난 6일 비즈니스 호텔인 '글래드(GLAD) 호텔 여의도'를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호텔 사업 확장에 나섰다. 대림은 호텔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전략 하에 국내에서만 4000객실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호텔 사업기획과 개발부터 시공·운영에 이르기까지 대림그룹 계열사들이 모두 담당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이 호텔 사업기획과 개발을 담당하고, 규모에 따라 대림산업과 삼호가 시공에 참여하게 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올 들어 주택 분양시장 분위기가 많이 회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파트 외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사업다각화가 더욱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옥기자 ssol@metroseoul.co.kr

삼성엔지니어링 '플래츠 어워드' 대상 삼성엔지니어링이 세계 최고 권위의 2014 플래츠 어워드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 박중흠 사장(왼쪽 3번째)이 시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제공

한파에도 모델하우스 '후끈'

떴다방까지 등장

영하권을 밑도는 매서운 추위도 분양시장의 열기는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을 여는 견본주택마다 수 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가 하면, 정부 단속으로 잠시 주춤했던 떴다방도 기승을 부렸다.

대우건설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개관한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3일간 2만7000여 명이 방문했다. 같은 날 한화건설이 오픈한 '위례 오벨리스크' 모델하우스에도 약 1만1000명이 다녀갔다.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상품은 다르지만 두 단지 모두 위례의 핵심권역으로 꼽히는 휴먼링과 트램길을 내 들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중대형 아파트인 '위례 아트리버 푸르지오'에는 40~50대의 중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오피스텔 '위례 오벨리스크'에는 30대를 전후한 젊은 부부들의 발길이 잦았다.

한 이동식 중개업자(떴다방)는 "앞서 분양된 주요 아파트에 웃돈이 1억원 이상 붙었다"며 "올해 위례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단지인 데다 입지도 좋아 모델하우스 오픈 며칠 전부터 나와 영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이 시흥 목감지구에서 문을 연 '시흥목감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에도 지난 11일부터 주말까지 4일간 2만1000여 명이 내방했다. 광명역세권과 같은 생활권이면서도 분양가는 더 저렴한 게 주효했다.

라온건설이 경기도 광주 오포에서 선보인 '신현 라온프라이빗'도 사실상 분당생활권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12~14일까지 3일간 모델하우스에 1만50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였다.

지방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한양이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공급하는 세종 한양수자인 엘시티 모델하우스에는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일간 1만8000명 이상이 다녀갔다. 과잉공급 논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은 여전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내년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기 전에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과 분위기 좋을 때 되도록 많은 물량을 쏟아내자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겨울 분양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중개사 72% "내년에도 전셋값 오를 것"

투자 유망 1위는 상가

전국 공인중개사 72.2%는 2015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전세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661명 중 '완만한 상승세'가 59.6%(394명), '급격한 상승세'가 12.6%(83명)로 전세가 상승 예상이 72.2%(4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회원 가입 공인중개사 661명을 대상으로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다.

반면 '완만한 하락세'는 4.2%(28명), '급격한 하락세'는 1.1%(7명)로 '전세가 하락' 예상은 5.3%(35명)에 불과했다. '큰 변동 없는 보합세'라고 응답한 비율은 22.5%(149명)로 '완만한 상승세'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2015년 월세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큰 변동 없는 보합세'가 46.7%(309명)로 가장 많았다. '완만한 상승세'가 28.9%(191명), '급격한 상승세'는 3.2%(21명)로 '월세 상승' 예상은 32.1%(212명)였다. '완만한 하락세'는 19.1%(126명), '급격한 하락세'는 2.1%(14명)로 월세 하락 예상은 21.2%(140명)로 조사됐다.

'2015년 매매시장 전망'에 대한 답으로는 '큰 변동 없는 보합세'가 47.4%(313명)로 가장 많았다. '완만한 상승세'가 32.4%(214명), '급격한 상승세'는 1.8%(12명)로 매매가 상승 예상은 34.2%(226명)였다. '완만한 하락세'는 15.9%(105명), '급격한 하락세'는 2.6%(17명)로 매매가 하락 예상은 18.5%(122명)로 나타났다.

'2015년에 가장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 투자 상품'에 대한 답으로는 '상가'라는 응답이 32.4%(21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규 분양 아파트'가 24.2%(160명),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이 13.3%(88명), '토지'가 13.0%(86명),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이 5.4%(36명) 순이었다. /김두탁기자 kim@

외식업계, 연말 스페셜 메뉴 출시 잇따라

가족·연인 고객 겨냥, 저렴하고 푸짐하게

외식업계에서 연말 특수를 맞아 잇따라 시즌 스페셜 메뉴를 선보이면서 고객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뷔페 브랜드의 경우 예인 메뉴 출시와 함께 브랜드 특성에 맞춰 스테이크를 선보이거나 홈파티를 겨냥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곳도 있다.

종합외식기업 아모제푸드에서 운영하는 이탈리안 허브 뷔페 레스토랑 '엘레나가든'의 경우 '윈터 플래터(Winter Platter)' 2종을 선보였다.

이 메뉴는 크리스마스·송년회 등 모임이 많은 연말에 맞춰 3~4명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킹 크랩 플래터'와 '엘레나 플래터' 2종으로 구성됐다. '킹 크랩 플래터'는 킹크랩 가리비 그라탕·스테이크·고구마 매시를 함께 맛볼 수 있는 메뉴이다. '킹 크랩 플래터'는 신선한 킹크랩을 제공하고자 한정 수량에 한해 판매한다. '엘레나 플래터'는 주문 때 감자 포차와 가리비 그라탕·스테이크·고구마 매쉬를 맛볼 수 있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애슐리는 '해피 모먼트 위드 애슐리'를 콘셉트로 주요 재료, 조리법 등을 다양하게 구성한 겨울 신메뉴를 출시했다. 계란에 양파, 햄, 베이컨을 넣어 오븐에 구워낸 후 썬드라이토마토를 올린 브런치 스타일의 햄튼 프리타타, 매콤 달콤한 소스에 고단백 저칼로리의 닭 살코기가 조화를 이루는 '컨트리 스와이스 찜닭'으로 감자에 독일식 소시지와 양파 크리스트가 믹스된 도이치 매쉬드포테이토, 매콤한 페퍼콘치노와 홍합이 어우러진 깔끔하고 담백한 겨울철 별미인 벨기에식 홍합 스튜가 대표적이다.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는 '윈터 테이블(Delightful Winter Table)'을 주제로 '얌 우드 본 인 립아이 스테이크'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기존 립아이 스테이크(230g)보다 무게가 2배 이상(500g)이다. 또한 스테이크 소시지·스노우 크랩(대게), 구운 새우와 채소 등을 원형 주물 안에 담은 '시즌 스페셜 샘플러'도 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호주 청정우의 신선한 육즙과 브라운 버터의 깔끔한 풍미를 맛볼 수 있는 '블랙라벨 스테이크' 2종을 내놨다. '블랙라벨 스테이크'는 냉장육을 사용해 육즙이 가득하며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이 메뉴는 꽃등심 스테이크인 '퀸즈랜드 립아이 포푸'와 채끝 등심 스테이크인 '달링 포인트 스트립' 2종으로 구성됐다.

강강술래는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 인기 메뉴인 솔래양념 한우불고기, 한돈양념구이·돼지양념구이로 구성한 '송년세트'를 40% 할인해 6만원에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jyms@metroseoul.co.kr

접이식 헬스싸이클 반값 판매 이마트가 겨울 실내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접이식 싸이클을 단독 기획해 11일부터 전점에서 시중가 대비 4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자석 방식의 마녀 마그네틱 시스템을 사용해 벨트를 교체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없다. /이마트 제공

'통통통' '새양말'…이런 건배사 아세요?

새해 희망·직원 간 동료의식 고취 등 재치있는 함축어 담아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있다.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자리인데 이때 모임을 유쾌하게 하는 것이 재치와 유모가 가득한 건배사이다. 나만의 건배사를 하나쯤 알아두는 것도 센스 있는 사람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주류회사 직원들이 추천하는 건배사가 나와 관심을 끈다. '통통통', '새양말', '진달래' 등이 있다. '통통통'은 '의사소통, 운수대통, 만사형통'을 뜻하며 '새양말'은 '새해기 밝아 양이 오고(2015년 청양) 말이 갑니다(2014년 청마)'를 함축한 말이라고 한다. 또 '진달래'는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단어들은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천받은 송년회 건배사이다.

하이트진로는 1일부터 12일까지 약 2주 동안 사내 설문을 통해 직원들이 송년회에서 즐겨 사용하는 건배사를 조사했다. 약 3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건배사가 추천됐다.

올해 건배사들은 대부분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을 담은 메시지가 많았다고 한다.

직업적 특성이 드러난 건배사들도 있었다. '건배의 한자 뜻 '마를 건(乾)' '잔 배(盃)'를 그대로 사용해 '오늘은~ 이 잔이 마를 때까지 내일은~ 승리의 그날까지'라는 자영업 영업현장의 결의를 다지는 건배사도 눈에 띄었다. 또 '소화제(소통하고, 화합하고, 제미있게 마시자)' 등 직원들 간 동료의식을 고취시키는 내용도 많았다.

더많은 건배사를 찾길 원한다면 하이트진로가 제작한 '건배사' 애플리케이션을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영일기자

편의점 케이크 판매 돌입

1~2인 가구 위해 저렴한 가격·할인 공세

편의점 업계가 연휴를 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 준비에 한창이다. 저렴한 가격과 할인을 내세워 케이크 판매에 돌입한다. 이 외에 시즌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도 운영한다.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을 주로 찾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용량 케이크를 올해 첫 출시했다. 가격도 1만원대 전후로 보통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2~3만원대를 훌쩍 넘는 가격인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미니 케이크 3종 중 '파네토네'(사진)는 이탈리아에서 크리스마스 때 즐겨 먹는 케이크로 와인과 함께 즐기면 좋다.

이 외에도 일반 케이크 5종, 나뚜르 아이스크림 케이크 6종을 포함해 총 20여 종의 케이크 상품을 준비했다.

4~5인용 케이크 5종에 한해 엔사 와인과 함께 구매할 경우 상품에 따라 최대 17%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할인 공세에도 적극 나선다. 또 마카롱, 쿠키 세트 등 디저트 전용 상품, 크리스마스 겨냥 샌드위치 등 시즌 상품도 선보인다.

한편 미니스톱은 다양한 종류의 조각 케이크를 합쳐 만든 '판타스틱 시리즈' 300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링크'를 2호 등 1만~3만원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판매한다.

/김수정기자 kus@2158

강강술래 "연말선물 알뜰 장만하세요~"

21일까지 송년세트·한우곰탕 40% 할인
영광 법성포 보리굴비세트도 반값 판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연말연시를 맞이 고마운 분들께 드릴 전물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감사 이벤트를 벌인다.

먼저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송년세트(솔래양념8대+한우불고기500g+빤돈양념구이500g+돼지양념구이500g)를 40% 할인된 6만원에 판매한다.

또 겨울철 기력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ml×6팩, 18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박스(350ml×10팩, 20인분) 3만78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20마리)도 약 50% 할인된 6만4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와 함께 12월 말까지 전 매장에서는 8인 이상 사전예약 때 한우육회를 테이블 당 하나씩 서비스로 제공한다. 20인 이상 예약할 경우 육회와 편수까지도 지원한다. 단 구이메뉴(정식류 제외)이 쉬 제외) 주문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오는 21일까지 홈페이지 문화경품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조로' 공연티켓도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설원 속 피부 보호는…

찬바람·자외선에 손상 줄이기… 스키장 뷰티 노하우

겨울 스포츠의 계절이다. 춥고 건조한 스키장에서 장시간 피부가 노출되면 안면홍조, 건조증 등 다양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 스키장으로 출발 전 피부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뷰티 아이템부터 챙겨야 한다.

설원 위의 자외선 지수는 한여름의 태양만큼이나 강하다. 눈에 의해 반사되는 자외선 양은 평상시의 4배며, 높은 지대로 올라갈수록 자외선 양도 늘어난다.

스키 타기 30분 전 기초 화장 마지막 단계에 자외선 차단지수 50 이상 제품을 평소 바르는 양의 2~3배 정도 발라야 한다.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으로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을 동시에 해주는 것도 좋다.

한율 진감국 미백 선크림 SPF50+/PA+++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은 물론 메이크업 전 피부 바탕을 최적의 상태로 가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매끈한 피부를 유지시켜 준다.

고지대에 위치한 스키장에서는 평지보다 차가운 바람에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찬바람을 맞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면 갑작스러운 온도차이로 인해 피부 홍조 혹은 극심한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응급 상황에 대비해 피부 보습·진정 효과에 탁월한 멀티밤을 준비하는 게 좋다. 멀티밤은 다양한 부위에 사용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해 이동이 많은 스키장에서도 쉽게 쓸 수 있다.

엘리 토탈에이징케어 멀티밤은 97% 천연 유래성분으로 피부에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되며, 동백 오일 성분이 각질이 일어나는 건조 부위에 윤기와 영양을 부여한다.

예민해진 피부의 빠른 컨디션 회복을 위해 수면팩으로 스페셜 케어를 해야 한다.

얼굴 전체에 적은 양을 바르면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잠자는 시간 동안 집중적인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수면팩만으로 보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성 피부라면 스킨케어 단계에 페이스 오일을 몇 방울 섞어 발라주면 피부 속 깊은 보습감을 보충할 수 있다.

라리코스 오이스터 안티-다크닝 테라피는 밤사이 수분·영양 피지 케어와 동시에 미백 기능성 성분이 다크닝을 케어해 안색을 밝혀주는 슬리핑 마스크다.

/이지현기자 jjh@metroseoul.co.kr

발끝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1400 홀리데이 팩' 운동화 출시를 기념해 배우 고준희와 촬영한 화보를 15일 공개했다. 고준희는 캐거진 오보이와 함께 한 화보에서 붉은색 의상과 소품, 뉴발란스 홀리데이 팩 운동화로 크리스마스 룩을 선보였다.

/오보이 제공

이케아 광명점, 가격 변동없이 18일 오픈

65개 쇼룸 — 8600여 개 제품 판매

이케아코리아가 오는 18일 드디어 1호점 광명점을 오픈한다. 이에 앞서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부를 공개했다.

광명점은 연면적 13만1550㎡에 2개 층의 매장과 사무실+3개 층의 주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판매층 면적만 5만9000㎡로 전세계 이케아 매장 가운데 가장 크다.

매장 내에는 실제 일상을 반영한 65개의 쇼룸과 실제 집처럼 꾸며놓은 3개의 홈이 있으며 약 8600여 개의 제품이 판매된다.

안드레 슈미트갈 리테일 매니저는 "이케아 광명점에는 다양한 취향과 개성, 연령대의 고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과 아이디어가 가득하며 광명점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집에서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홈퍼니싱 아이디어를 접해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격은 기존 공개됐던 것과 동일하다. 지난달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에 8000여 개의 제품 가격을 공개했으며 일부 제품이 미국·일본·중국 등에서의 판매 가격 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지난달 열린 이케아코리아 기자간담회에서도 가격과 관련해 "인하 계획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작은 사이즈 속옷 선물에 실망"

남녀 대상 이색 설문

남녀간 선호하는 속옷 디자인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속옷 브랜드 비비안은 공식 브랜드 블로그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선물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 싶은 속옷의 스타일을 묻는 질문에는 32%의 남성이 '심플하고 세련된 란제리'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여성스러운 레이스 란제리'(25%),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프린트가 그려진 커플속옷'(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자들이 선물로 받고 싶은 속옷 스타일은 '여성스러운 레이스 란제리'(22%)가 1위를 지지했다. 2위로는 '섹시한 블랙 혹은 호피 커플속옷'(19%)이 꼽혔다. 이 스타일은 남성이 선물하고픈 디자인 5위로 남성과 여성의 기준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고 비비안 측은 설명했다.

한편 사이즈와 관련해서 남성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의 속옷 사이즈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무려 69%의 남자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눈짐작으로 맞출 수 있다'고 답한 반면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답은 21%에 그쳤다.

사이즈와 관련한 흥미로운 결과도 눈길을 끈다. 여성 응답자의 54%가 '실제 자신의 사이즈보다 작은 제품을 선물 받았을 때 실망스럽다'고 답했다.

/박지원기자

"선물 하나로 놀이+교육"

연말 맞아 스마트 도서·완구 출시 늘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녀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비용은 들지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하면서 보다 뜻깊은 선물을 선해주고 싶어서다. 최근 도서·완구업계가 놀이와 동시에 교육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스마트한 아이템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예림비의 착감북 사운드북은 완구와 도서를 결합시켜 아이 선물용으로 큰 인기다. 특히 '랄랄라 크리스마스 캐럴'은 크리스마스 한글 캐럴 3곡과 영어 캐럴 3곡을 한 권의 책에 담은 사운드북이다. 삽화 속 이미지와 버튼을 매칭해서 누르면 음악이 흘러나오도록 돼 있고 가사가 삽입돼 있어 인지 능력 향상을 돕는다.

'리듬 악기 놀이 그림책 칭칭 쿵쾅 악기 연주회'는 그림책을 읽으며 리듬에 맞춰 스스로 악기를 연주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소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에 호기심을 보인 여자 아이에게는 영실업의 '콩순이 통통 뒤집는 말하는 프라이팬' 선물을 추천한다.

프라이팬은 포함해 요리도구 7종과 음식 3종이 포함된 주방놀이 완구로 '지글지글' 소리 등 12가지 사운드가 나와 아이의 탐구심을 길러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레고는 아이들의 공간지각능력을 길러주기에 적합하다. 레고 월드 시티 시리즈의 특수 경찰 추격전은 도둑 특수 경찰관 등 미니피겨 3종과 지랑 바리케이드, 금괴 등 다양한 소품으로 구성돼 아이가 상상하는 대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

/박지원기자

겨울방학, 아이 건강 챙기자

이비인후과 등 찾아 질환 확인 필요

겨울방학이 다가왔다. 방학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아이들과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야 하지만 평소 미뤄왔던 아이 건강을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다.

먼저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특성에 맞춰 아이에게 축농증이나 비염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축농증은 치료를 해도 반복적인 경우가 많아 콧속 점막이 두꺼워진 아이들의 경우는 내시경 등을 이용한 수술을 해야 한다. 또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이염 등을 앓고 있지는 않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겨울방학에는 시력검사도 해야 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의 증가로 눈에 쌓인 피로감을 풀어줘야 하며 시력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안경 등으로 시력을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또 안과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시 유무도 판단하는 것이 좋다.

아토피 등이 있다면 피부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중 여드름은 피부과마다 치료를 하는 방법이 달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아이와 함께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저학년은 앞으로 나올 영구치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하며 충치가 있는 아이의 경우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내 아이가 성조숙증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방학이 되면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살이 찌거나 게을러지는 아이들이 많다. 계획표를 함께 세워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이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기초체력을 보강하면서 건강을 챙겨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비만인 아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가족 모두가 다이어트에 동참해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황재용기자

"성인기저귀, 안전하지만 품질은 차이"

최근 고령화 추세에 따라 판매량이 늘고 있는 성인용 기저귀 제품들이 유해성 조사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품질을 나타내는 역류량 시험 등에선 차이가 컸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하 소시모)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과 공동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기저귀(성인용) 15개 제품의 품질 비교 시험을 한 결과 ▲고정 테이프의 인장강도 ▲흡수속 ▲누출량 등은 모두 기준을 만족했다. 또 안전 요구사항인 ▲pH ▲형광증백제 ▲폼알데하이드 ▲영소파페놀류 ▲아조염료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켰다.

30분간 시험 용액에 침지 후 측정한 흡수량 비교 실험 결과 시험 대상 전제품 600g 이상으로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 839(g)에서 최고 1466(g)로 차이가 있었다.

반면 기저귀에 한 번 흡수된 소변이 다시 피부에 묻어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역류량' 실험에서는 시험 대상 15개 제품 중 역류량 기준인 3.0(g)을 초과한 제품은 6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7g~7.7g까지 초과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5개 제품 중 기저귀의 교체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가 없는 제품이 2개였다. 포장 외부의 소변표시선 이미지와 실제 제품에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1개로 표시 사항 개선이 필요했다. 수입제품의 경우 한글 표시가 안 된 제품이 유통되는 등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준수가 요망된다고 소시모 측은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유방암 조기 발견, '병원 선택 중요'

심평원, 적정성 평가 공개… 홈페이지 확인을

여성암 중 하나인 유방암은 갑상선암을 제외한 여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암이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아지는 만큼 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이런 연유로 만 18세 이상 여성에게 유방암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2013년 진료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유방암 평가는 185개 기관의 77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종합점수가 96.87점으로 집계돼 국내 유방암 치료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평가 대상 185개 기관 중 평가등급 산출 대상인 98개 기관을 17개 지표로 점수를 매겨 1~5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1등급인 기관은 전년보다 8개 늘어난 80개 기관(81.6%)이었다. 또 제주와 강원 등을 포함해 전국 각 지역에 고른 분포를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병원 간 진료의 편차가 줄어들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4~5등급의 기관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4등급은 총 1개 기관으로 경기권에 위치한 박희붕의과의원이다. 또 서울권의 예이지플러스양지병원과 경기권의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은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결과를 국민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평가등급과 각 지표별 평가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내년 1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미용 성형도 때가 있다!

어린 나이 골격 변형과 중년층 만성질환 우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성형외과를 찾는 학생들과 미용 시술을 하려는 중년층이 늘고 있다. 하지만 미용 성형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성형외과를 찾는 어린 학생들은 골격 성장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 만 17세 전후로 골격 성장이 끝나는데 뼈에 변형을 가하는 수술은 성장이 모두 끝난 후 받아야 한다. 유방 확대술과 같은 몸매 성형을 원하는 여학생들 역시 성장이 멈추는 성인 이후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청소년기는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불안한 시기로 추구하는 미적인 가치관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수술 전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정말 성형이 필요한지 충분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만 선천적인 기형이나 크기가 큰 점(거대모반), 구순구개열 등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해져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미용 성형을 하려는 중년층 이상의 연구도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일단 만성질환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사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평소 체력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이 우선돼야 한다.

이현택 바노바기성형외과 원장은 "미용 성형 역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이다. 연령이나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 검사가 있어야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장그래·오 차장도 음주 질환?

사회 초년생과 50대 연말 회식 조심해야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의 음주는 피하기 힘들다. 특히 한 조사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해서 술을 줄이거나 끊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사회 초년생 20대(71.1%)와 50대(60.5%)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에 이선영 이대목동병원 위장 담도센터 교수와 같은 병원 간센터의 문일환 교수에게서 조심해야 할 연말 음주 질환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미생'의 장그래로 대표되는 사회 초년생은 급성 위장염을 주의해야 한다. 젊은 층에 지나친 음주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며 심한 복통과 구토 등이 주요 증상이다. 또 위장이 붓는 정도의 염증이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염증이 심하면 위장 조직이 썩는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심장이나 폐 등에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오상식 차장과 같은 40~50대 차장과 부장도 술 마시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 이전부터 마시던 술의 영향으로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간염 등 알코올성 간질환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알코올성 지방간은 간 내에 지방이 정상 이상으로 쌓인 상태로 절주나 금주를 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면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 등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알코올성 간염은 간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는 알코올성 간경변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문 교수는 "연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려우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 금주하는 것이 좋으며 만성 간질환자는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연기·음악·미모' 준비된 팔방미인

'미생' 철강팀 **박진서**

뒷모습만 나와도 풀메이크업으로 철저 준비
장백기 뒷자리女? "관심 받고 있어 마음에 들어요"
"전도연 선배처럼 진정성 느껴지는 연기 하고파"

tvN 금토드라마 '미생'은 여배우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렇다 할 로맨스가 없기 때문이다. 삭막한 직장 생활을 다루다 보니 몇몇 여배우들은 비중은 크지 않아도 각자 나름의 에피소드로 재미를 더한다.

그 중에서도 배우 박진서는 단연 눈에 띄었다. 극중 원 인터내셔널 철강팀 홍일점인 신다인 역을 맡은 그는 장백기 뒷자리녀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신입사원 장백기(강하늘)의 말을 듣거나 박종식 과장(김희원)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에피소드, 분주하게 일처리를 하는 장면 등 중요한 장면 곳곳에 그가 있었다.

최근 인터뷰에서 만난 박진서는 차분하면서도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첫 인터뷰라는 그는 "드라마 시청률이 좋다보니 지인과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많이 온다. 아직 밖에서는 많이 알아보지 못해 큰 인기를 실감하지는 못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생'이 인기 웹툰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인기가 어 정도일지는 몰랐다"며 "사실 원작 내용은 잘 몰랐다. 캐스팅 후에 새로 완독했다"며 쑥스러운 듯 솔직한 웃음을 보였다.

박진서는 2010년 KBS2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단역으로 브라운관에 데뷔했다. '미생'의 김원석 PD와는 그때 처음 만났다. 박진서는 "'성균관 스캔들'에서 한 컷 밖에 나오지 않았다. 감독님이 기억해 주실 줄 몰랐는데 예뻐졌다고 칭찬해 주셨다"며 "캐스팅되고 5회차부터 방송에 나왔다. 처음에 신다인은 통통튀는 여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은 일 잘하고 바르고 착한 그야말로 평범한 여사원을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진서는 강하늘의 뒷자리에 앉아있는 실무직 사원이다. 대사도 많지 않고 얼굴보다는 뒷모습이 화면에 더 많이 잡혔다. 신인 배우로서 인기있는 드라마에 한 컷이라도 더 얼굴을 내비치고 싶은 욕심이 있을 법도 하다.

이에 박진서는 "화면에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배역이 작은 것에 불만이 없다. 신다인의 그런 모습이 드라마와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출연 분량이 편집된 적은 없다. 감독님께서 오히려 더 잡아주신다"고 말했다. 또 "뒷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잡혀 뒤태에 늘 신경을 쓴다. 다만 뒷모습만 나와도 풀메이크업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팀 내 책상 위에는 거울이 항상 있다"며 웃음을 보였다.

'미생'은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드라마다. 박진서는 "실제 대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항상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 특히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동선에서 대본과 차이나는 부분은 감독님이 그때 그때 말씀을 해주신다"며 "철강팀이 분주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는 동작, 서류를 찾는 시늉 등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한 애드리브였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회사원은 배우에게는 낯선 직종이다. 박진서는 "사전 공부도 했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에게서 조언도 구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이 배웠다. 촬영장에서도 배우들이 극중 이름을 부르며 실제 회사원처럼 지낸다"고 했다. 또 "선배님들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우고 있다. 특히 이성민 선배님은 대단했다. 첫화에 나온 장면을 보고 평소의 장면과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확 달라지는 프로다운 모습에 정말 많이 배웠다"고 전했다.

박진서는 어릴 때부터 미모를 인정받은 재원이다. '뽀뽀뽀' 비디오 촬영부터 EBS 프로그램, 각종 CF 등에서 얼굴을 비친 아역 배우 출신이기도 하다. 원광예술고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던 그는 고등학생 2학년 시절 한 보석 미인대회에서 진을 수상하며 연기자의 꿈을 갖게 됐고 이후 서울예대 방송연예과에 진학하면서 180도 바뀐 인생을 살게 됐다.

이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꿈도 궁금하다. 박진서는 영화 '밀양'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배우 전도연을 닮고 싶다고 했다. 작품에서 전도연을 꼭 만나겠다는 당찬 목표도 함께 전했다.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학창시절 항상 아프거나 연약하고 당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하지만 악역도 자신있습니다. 백치미 넘치는 발랄한 캐릭터도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작품과 멋진 캐릭터로 인사드릴게요."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최송이

'꾀꼬리' 가수 박혜경 중국 간다

중국어·중국 문화 배우며 준비 작업
히트곡 '그대 안의 블루' 리메이크
록스타 친용과 듀엣곡으로 무대

가수 박혜경(사진)이 중국 진출을 선언했다.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에반스 라운지에서 박혜경은 중국 싱글 앨범 '송 버드'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배우 장나라의 아버지이자 박혜경의 중국 진출을 도운 주호성과 현지 매니지먼트 엑스스타의 담월명 회장이 참석했다.

박혜경은 이번 중국 진출에서 중국 록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친용과 함께 했다. 이들은 '그대 안의 블루'를 중국어 버전으로 개사한 '웨이아이즈디마'로 활동할 계획이다. 중국어 가사는 대만 유명 작사가 허세창이 맡았다.

이날 박혜경은 "짜자하오(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발음도 발음이지만 성조도 무척 중요하다"며 그동안 연습한 중국어 실력을 뽐냈다.

박혜경은 중국 진출을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서 중국 여행을 했다"며 "중국을 돌아다니며 친구들도 사귀고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졌다. 특히 중국 음식은 가리는 것 없이 다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여행 중 만난 한 아가씨가 있다. 그 아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놀랍게도 그가 들려준 음악은 내가 부른 '에스터데이'였다"며 중국과의 남다른 인연을 밝혔다. '에스터데이'는 배우 현빈과 송혜교가 출연한 한 중국 TV 광고의 삽입곡으로 사용된 노래다.

이날 '웨이아이즈디마'는 라이브 무대로는 볼 수 없었다. 대신 뮤직비디오 한 편이 상영됐다. 뮤직비디오에는 박혜경을 만나러 한국을 찾은 친용과 그의 아들의 다정한 한 때가 담겨 있었다.

주호성은 "한류 중에서도 무대 한류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 가수가 중국 공연에서 한 시간 넘도록 한국어로만 노래를 하면 관객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국어로 된 노래를 준비하면 현지 관객이 무척 고마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혜경은 한국에서 나름 중견가수인데 중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중국어 노래를 녹음해왔더라. 친용과 함께한 노래를 듣고 정말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중국 문화를 배우고자 오랜 기간 노력한 박혜경을 칭찬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혜경의 가수 생활 17년을 함께해온 팬들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다.

박혜경은 "오늘 입은 의상은 팬이 만들어 준 것"이라며 "그 친구(팬)가 대학생일 때 내가 학교 축제에 가서 공연한 적이 있다. 그 친구는 그때부터 내 팬이 됐다고 한다. 이제는 친구를 넘어서 가족 같은 사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대 의상을 만들어 준 팬은 박혜경에게 또 다른 옷을 선물했다. 흰색 미니 드레스를 선물 받은 박혜경은 감동의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눈물을 흘린 뒤에 목이 살짝 쉬었지만 최선을 다해 히트곡 '고백'과 '레몬트리' 등을 불렀다.

한편 박혜경은 내년에는 한국에서도 활동할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kong@metroseoul.co.kr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악스코리아에서 열린 '2014 K-루키즈 파이널 콘서트'에서 록밴드 아즈버스가 대상을 차지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록밴드 아즈버스 '올해 최고의 신인'

'2014 K-루키즈 파이널' 대상 영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신인 육성 지원 프로젝트 '2014 K-루키즈 파이널' 최고의 팀에 록밴드 아즈버스가 선정됐다.

올해의 K-루키즈 후보로 선정된 6개 팀 18.그램, 러브엑스테레오, 루디스텔로, 아즈버스, 신현희와 김루트, 크랜필드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악스코리아에서 열린 '2014 K-루키즈 파이널 콘서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날 대상을 차지한 아즈버스는 "멤버들끼리 3등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우승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예상치도 못한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속사 없이 음악 활동하는 게 힘들었는데 K-루키즈 선정으로 많은 힘이 됐다"고 밝혔다. 올해 최고의 루키로 선정된 아즈버스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아즈버스는 강태근(드럼), 우주(보컬&기타), 우석제(베이스)로 이루어진 3인조 혼성 록밴드다. 이들은 이날 대표곡 '꽤양'과 '몬스터' 등을 불렀다. 허스키한 보이스가 매력적인 여성 보컬, 그리고 거칠고 파워풀한 연주로 2000여 관객과 심사위원을 사로잡았다.

최우수상은 러브엑스테레오, 우수상은 루디스텔로가 차지했다. 이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날 공연에는 6개 팀의 공연은 물론 홍대 인디 신을 대표하는 선배 뮤지션의 축하 무대도 이어졌다. 공연에 함께 한 노리플라이는 "다들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K-루키즈에 나왔다면 떨어졌을지도 모르겠다"며 "6팀 모두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공연은 오는 27일 오후 5시 OBS에서 방송된다. /장석민기자

넬이 부르는 청춘의 노래

신곡 '청춘연가' 발표 … 드러머 정재원 MV 열연

밴드 넬이 청춘을 노래했다.

넬은 15일 자정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 '청춘연가'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청춘연가'는 겨울에 잘 어울리는 어쿠스틱 연주와 보컬 김종완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룬 곡이다. 넬은 '청춘연가'에서 청춘을 위로하거나 진양하지 않는다. 다만 잔잔한 기타 선율에 맞춰 청춘의 순간에 대해 담담하게 노래한다.

뮤직비디오는 빌딩 숲과 한강대교를 하염없이 걷는 한 사내의 궤적을 쫓으며 음악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넬의 드러머 정재원이 출연했다. 정재원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4시간 정도 거리를 걸어 다니며 열연을 펼쳤다.

소속사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요즘 청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다들 위로하거나 자유하라고만 하지 청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선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며 "넬의 '청춘연가'는 용감할 정도로 솔직했던 청춘을 담담히 노래해 청춘이라는 시간을 보내온 모두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노래"라고 설명했다.

한편 넬은 오는 24일 단독 콘서트 '크리스마스 인 넬스룸'을 개최한다. /정해린기자

나인뮤지스·팬 '영화 관람 데이트'

그룹 나인뮤지스(경리 민하 성아 이유애린 현아 혜미·사진)가 팬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15일 나인뮤지스의 소속사 스타제국 측은 공식 SNS를 통해 "'1212 마인(나인뮤지스 팬클럽 이름) 프라이데이'에 와주신 모든 마인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랑해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나인뮤지스 멤버는 팬으로 꽉 찬 영화관에서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준 섹시한 모습이 아닌 흰색 핑크색 옷의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사아내 시선을 끈다.

스타제국 측은 "나인뮤지스를 1년 동안 기다려주고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영화 관람 팬미팅을 기획했다"며 "멤버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됐다. 2015년에는 활발한 활동으로 팬과 더 많이 소통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인뮤지스는 내년 1월 컴백을 목표로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강지환, 국악 있는 日 팬미팅

배우 강지환(사진)이 일본 팬미팅을 열어 한류 스타로서의 건재함을 입증했다.

강지환은 지난 13일 일본 도쿄 히비야 공회당에서 팬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날 강지환은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재치 있게 토크를 이끌었다.

특히 가야금과 해금 선율과 기타·드럼·피아노를 접목한 감각적인 공연으로 일본 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강지환은 '심청가' '사랑가'를 연창했고 난타 공연을 하며 열정적인 무대를 했다.

국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이날 팬미팅 무대는 한국 문화 전도사라는 한류스타 본연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평가다. 강지환은 두 달여 전부터 기획과 연출을 직접 참여했다는 후문이다. 팬미팅이 끝난 뒤에는 관객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올해 초 강지환이 출연한 KBS2 드라마 '빅맨'은 현재 일본 위성극장에서 방영 중이다. /전효진기자

로맨틱 코미디 '수난 시대'

'미스터 백' '미녀의 탄생' 시청률 하락세
"현실 연애 대세 … 신데렐라 스토리로는 안 된다"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가 시청률 하락세를 타고 있다. 추리·미스터리 같은 특색 있는 작품과의 경쟁, 신데렐라 스토리에 대한 피로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MBC 수목극 '미스터 백'은 첫 회 14.2%(닐슨코리아·전국 기준)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이후 지난 10일 9.1%로 저음 빈 자리대 수치를 보였다. 동시간대 SBS '피노키오'와 조취전이기는 하지만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미스터 백'은 배우 신하균의 코믹 연기가 인상적이다. 노년의 말투와 행동이 젊어진 외모와 달라 재미를 더한다. 최고봉(신하균)은 사고로 젊어진 후 최신형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 가고 있다. 최신형은 최고봉 시절 반한 은하수(장나라)와 연애 중이다.

극 초반에는 두 사람의 코믹과 귀여운 멜로가 시청 포인트였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30대인 두 사람이 다섯 글자로 말하기 게임, '만화 캐릭터로 분장해 놀기' 등 다소 유치한 사랑 놀이를 이어가 로코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쟁작 '피노키오'가 기자로의 성장 과정부터 사건을 둘러싼 스릴, 주인공들의 청춘 멜로까지 삼박자 균형을 이뤄 웰메이드 드라마로 호평받아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다르다.

MBC 수목극 '미스터백' 장나라·신하균 /MBC 제공 SBS 주말극 '미녀의 탄생' 주상욱·한예슬·정겨운 /SBS 제공

SBS 주말극 '미녀의 탄생'의 경우 "배우들 때문에 본다"는 시청자 의견이 주를 이룬다. 최고 시청률 10%를 기록했던 '미녀의 탄생'은 14일 방송에서 6.1% 시청률을 보였다. 안방으로 3년 만에 복귀한 한예슬, 올해 MBC 드라마 '앙큼한 돌싱녀'로 브라운관에 등극한 주상욱의 이름만 남은 드라마다.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비현실적인 연애를 연출한다는 점이다. 올해 로코 장르계의 대세는 '현실 연애'였다.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KBS2 드라마 '연애의 발견'이 젊은 시청자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이유다. 그러나 '미녀의 탄생'은 2000년대 초반 유행한 '신데렐라 드라마'와 극 설정이 비슷하다. 그를 경영인으로 선 자리에서 자신의 연인과 춤을 추거나 얼굴에 묻은 밀가루를 떼주다 또한 감정을 느끼는 건 시대에 맞지 않은 '케미'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판타지적인 사랑이 로맨틱 코미디의 강점이었는데 최근 방송가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신데렐라 스토리나 유치한 연애 이야기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효진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이소연, 판타지오와 계약

배우 이소연(사진)이 판타지오와 계약했다.

판타지오 측은 이소연과의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입증하듯 여러 작품을 통해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쌓아온 배우"라고 이소연을 소개했다.

이어 "예능을 통해 보여줬듯 연기뿐만 아니라 엔터테이너적인 장점까지 두루 갖춘 배우라고 생각한다"며 "이소연의 새로운 도약을 도울 수 있는 든든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연은 2003년 영화 '스캔들'로 데뷔한 뒤 2008년 SBS '내 인생의 황금기'로 여자 신인상을 수상했다. 영화 '국화꽃향기'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드라마 '봄의 왈츠' '천사의 유혹' '닥터 진'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했다. 특히 2010년 MBC '동이' 2011년 SBS '내 사랑 내 곁에', 지난해 KBS '루비반지'로 지상파 3사에서 여자 우수 연기자상을 받으며 연기력을 인정 받았다.

지난해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에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윤한과 가상 부부로 출연해 방송연예대상 여자 우수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JTBC '12년만의 재회: 달래 된, 장국'에서는 선과 악을 넘나드는 연기로 안방을 사로잡았다.

이소연과 계약한 판타지오는 하정우·염정아·주진모·성유리·김성균·김영애·김새론·서프라이즈 등 40여 명의 배우들이 소속된 대형 매니지먼트사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매니지먼트 외에도 드라마·영화·음반까지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이휘재·택연·윤아 '가요대축제' MC 발탁

"세대 아우르는 최적의 조합"

이휘재(사진 오른쪽)·택연(가운데)·윤아(왼쪽)가 '2014 KBS 가요대축제' 진행을 맡는다.

'2014 KBS 가요대축제'는 올해 발표된 가요를 통해 세대가 하나 되는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MC를 맡게 된 이휘재는 축제의 길잡이로 프로그램을 이끈다. 안정적인 진행과 입담,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서언·서준 쌍둥이 아빠로 보여준 진정성이 어우러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택연과 윤아는 4년 연속 KBS 연말 시상식 MC를 맡게 됐다. 상큼한 모습으로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윤아는 지난해 'KBS 연예대상' 'KBS 연기대상'에 이어 올해 'KBS 가요대축제'까지 연말 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KBS의 한 관계자는 "국내 예능계와 가요계에서 맹활약 중인 세 사람의 진행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색다른 재미를 줄 것"이라며 "이들은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이 될 '2014 KBS 가요대축제'의 의미를 살려 내기에 최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휘재·택연·윤아가 진행하는 '2014 KBS 가요대축제'는 오는 26일 오후 8시 30분부터 220분간 KBS홀에서 생방송된다. 방청 신청은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효진기자

아름다움·불안함에 담긴 여배우의 민낯

영화·연극·현실의 모호한 경계… 세대 초월 연기 앙상블

film review

/조형로 기자 soon@metroseoul.co.kr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여배우의 삶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다. 여배우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스스로를 감싼 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대중 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화려함 이면에 감춰진 여배우의 진짜 모습을 궁금해 한다.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는 여배우의 바로 그 민낯을 담아낸 영화다.

영화는 톱스타 마리아 엔더스(줄리엣 비노쉬)의 이야기를 그린다. 마리아 엔더스는 스무 살 시절 '말로야 스네이크'라는 연극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상사인 헬레나를 유혹해 자살로 몰고 가는 젊고 매력적인 캐릭터 시그리드로 사랑 받았다. 톱스타로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온 그녀는 20년이 지난 뒤 같은 연극의 리메이크작에서 헬레나 역을 제안 받으면서 고민에 빠져든다.

마리아는 여전히 자신을 젊고 매력적인 시그리드라고 생각한다. 사람들 또한 그녀를 변함없는 스타로서 대한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연극 '말로야 스네이크'는 그녀로 하여금 지나간 20년의 세월을 생각하게 만든다. 젊은 매니저 발렌틴(크리스틴 스튜어트), 그리고 새로운 시그리드로 캐스팅된 배우 조앤(클로이 모레츠)과의 관계 속에서 마리아의 심리 상태는 점점 더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의 배경이 되는 알프스의 실스마리아는 거대한 산맥과 드넓은 호수가 조화가 신비로우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이다. 영화 속 연극의 제목인 '말로야 스네이크'는 바로 실스마리아 지역의 고개를 타고 흘러 들어오는 구름을 뱀에 비유한 표현이다.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동시에 이는 곧 다가올 악천후의 징조이기도 하다.

이 아름다움과 불안함의 공존은 곧 영화가 그리는 마리아의 심리 상태다. 실스마리아에서 펼쳐지는 마리아와 발렌틴의 대본 연습은 어느 새 연극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마리아의 감정으로 스며든다. 늦은 밤 남자를 만나고 돌아온 발렌틴의 젊은 육체를 넌지시 바라보는 마리아의 눈빛에서 시기와 질투를 읽어내기란 어렵지 않다. 영화가 담고 있는 알프스의 풍경은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인생에도 같은 늙음과 죽음의 그림자가 숨어서 배어 있다. "시그리드로 남고 싶다"는 마리아의 말에서 여배우라면 언젠가 겪을 회한을 느끼기란 어렵지 않다.

고개를 넘어오는 구름처럼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는 영화·연극·현실의 유유히 넘나들며 여배우의 이면을 찬찬히 그려나간다. 다만 갑작스럽고 모호한 전개와 결말이 조금은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다. 줄리엣 비노쉬·크리스틴 스튜어트·클로이 모레츠 등 세대를 초월한 세 여배우의 연기 앙상블은 영화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15세 이상 관람가. 12월18일 개봉.

공효진 파워 '리타'까지

배우 공효진(사진)이 연극계에서도 티켓 파워를 인정받고 있다. 공효진의 연극 데뷔작 '리타'가 연극 부문 판매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연극 '리타'는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에 의해 초연된 작품이다. 주부 미용사 리타가 뒤늦게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평생교육원에 입학해 그곳에서 권태로운 삶에 빠져있던 프랭크 교수를 만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달 3일부터 공연을 시작한 '리타'는 티켓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연극 부문에서 실시간 랭킹, 12월 랭킹, 크리스마스 랭킹, 연말 랭킹(각각 이달 12일 기준) 네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랭킹 1위는 실제 티켓 판매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다. 12월 한 달,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티켓 판매에서 높은 판매 기록을 세웠다는 의미다.

'리타'의 이 같은 흥행에는 공효진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15년 인기만 경력이 있는 그가 연극에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작 전부터 화제였다. 무대 위 사랑스러운 리타를 표현하는 공효진의 연기도 관객의 호평을 받고 있다.

'리타'는 내년 2월1일까지 DCF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에서 공연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임권택 감독 싱가포르 영화제 평생공로상

임권택(사진) 감독이 지난 13일 열린 제25회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싱가포르국제영화제는 1987년부터 시작된 영화제로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고양하고 우수한 영화를 발굴 소개하기 위해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한국·일본·프랑스 등 약 45개국 300편 이상의 영화가 초청된다.

평생공로상은 탁월한 작품으로 아시아 영화 발전에 지속적인 공헌을 한 영화인을 기리고자 올해 처음 제정된 상이다. 영화제 측은 임권택 감독을 첫 수상자로 정한 것에 대해 "한국 현대 영화의 거장이며 가장 존경 받는 감독"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임권택 감독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서 나의 영화를 관객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고 이런 따뜻한 상까지 주셨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임권택 감독의 대표작 '만다라'와 '안개 마을', 그리고 개봉을 앞둔 신작 '화장'의 특별 상영이 있었다. 영화제는 지난 4일 개막해 14일 막을 내렸다.

/황성운기자

우에노 주리 '뷰티 인사이드' 합류

이범수·유연석 등과 20인 1역

일본 배우 우에노 주리(사진)가 영화 '뷰티인사이드'(가제)에서 20인 배우가 함께 연기하는 주인공 우진 역으로 합류한다.

우에노 주리는 2002년 데뷔했으며 영화 '스윙걸즈'와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로 국내에도 많은 팬이 있는 배우다. 이번 영화에서는 20명의 우진 중 한 명으로 등장해 색다른 연기 도전에 나선다.

'뷰티 인사이드'는 자고 일어나면 매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한 남자와 그를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우에노 주리 외에도 김대명·도지한·천우희·배성우·박신혜·이범수·박서준·김상호·천우희·이재준·홍다미·조달환·이진욱·김민재·서강준·김희원·이동욱·고아성·이솜·김주혁·유연석 등 국내 최정상 배우들이 주인공 우진 역을 맡아 독특한 캐릭터를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는 칸 국제광고제 그랑프리와 클리오 국제광고제 금상을 수상한 인텔과 도시바의 합작 소셜 필름 '더 뷰티 인사이드'가 원작이다. 내년 2월 중 촬영을 마친 뒤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장성호기자

날씨

12/16 火 일출시각 07:40 일몰시각 17: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6.co.kr

지역	기온
서울	-6/-4
청주	-1/[illegible]
대전	-1/[illegible]
전주	1/1
광주	1/3
제주	1/7
강릉	2/4
울릉도	5/7
대구	1/5
포항	4/5
울산	4/7
부산	5/8

눈이 내리면 빙판길이 많아집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것을 삼가야 하며 특히 노인들은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한림대학교 지불백생원 (www.pal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8		
9				1		7	4	
	2	6					9	
1							7	
		3	8		6	9		
	6							3
	4					5	3	
	1	9		3				4
		5			2			

	8				9	4		2
5		9	1				7	
		6		5				9
			9	4				
		4	5		8	9		
				3	1			
6				1		7		
	9				6	1		5
1		8	3				6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엔사 스도쿠 프리미어」(피터 고든 프랭크 롱고 지음)

겨울철 가뿐한 아침을 위한 숙면법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겨울이 되면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냉기고 하나는 열이다. 냉기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몸에 열이 부족하고 오장육부의 활동성이 느린 경우가 많다. 겨울이 괴로운 타입으로 자고 일어나도 자기 전보다 더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

몸은 수면과 함께 체온이 약간 떨어진다. 몸이 휴식을 취하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되고 그만큼 발열량도 줄기 때문이다. 이때 냉기가 스며들어 찰이게 되면 체온이 과도하게 떨어지는데 이 냉기를 몰아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는 내내 추위에 떠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전보다 더 피곤하고 몸이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잠들기 전 말린 생강이나 대추를 넣고 진하게 끓여 마시자. 체온을 올려줘 밤새 스며드는 냉기를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새벽은 가장 체온이 떨어지기 쉬운 때이므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새벽 3~4시 정도에 난방이 다시 돌아가도록 타이머나 온도를 맞춰두는 게 좋다.

반대로 열이 숙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평소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스트레스와 화로 인해 발생한 열(火熱)이 몸에 계속해서 고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열이 과도하게 고여 있으면 신체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인다. 몸이 쉴 수 없으니 제대로 푹 자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 때는 연을 활용하면 좋다. 우리가 흔히 먹는 연근이 바로 연의 뿌리에 해당한다. 연은 잎·뿌리·열매·씨앗까지 가슴의 열을 내리고 심신을 안정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연의 열매에 해당하는 연자육은 뜨거운 열을 잡아주는 약재로 오래 전부터 쓰여 왔다.

연자육을 쓸 때에는 산조인으로 불리는 산대추 씨앗을 함께 넣으면 더 좋다. 산조인에도 심적 안정을 돕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예민해지는 것을 줄여준다. 물 2~3ℓ에 연자육과 산조인을 한줌씩 넣고 한번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 물이 반이 될 때까지 달이면 된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친 사귄 지 1년 결혼가능할까요 나이 차이 있는 연상남자 택할 듯

Q

궁금궁금 여자 88년 09월 2?일 양력 13시 10분
남자 87년 03월 23일 양력 23시 30분

현재 사귄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 상대자로 생각해도 좋을까요?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해도 되는지 궁합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김상회 선생님의 명성을 들어 안다고 당부하셔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자 88년 09월 2?일 양력 13시 10분, 남자 87년 03월 23일 양력 23시 30분입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가 만약 결혼 상대자로 생각해도 된다면 결혼 시기도 말씀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A 궁합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을 상호 갖고 있어서 어려운 때 서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천간(天干)에서 생해주거나 힘을 이뤄 주면 부부가 화합이 잘 되는 것입니다. 다소 지루한 설명이 될 수 있겠으나 들어 보십시오. 사주의 지지(地支)에서도 생합(生合)을 이뤄야 하며 한쪽에 부족한 오행이 있을 때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日柱) 태어난 날기 월지(月支) 태어난 달에서 서로 합을 이루어야 사주간에 가장이다. 궁合이 잘 맞아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운의 흐름에서 부인이 정재(正財)가 손상되는 추세가 되어야 부인이 건강하면서 복 있는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여자의 운의 흐름에서 남편인 정관(正官)이 상승하는 기운이 있어야 직장이건 사업이 잘되는 것입니다. 귀하는 관살(官殺)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로서 관성(官星)이 35세까지는 평탄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험한 길을 걷게 되어 있으므로 배우자가 장년 이후 노후가 어렵게 보입니다. 한편 남자의 운에서 귀하가 55세까지는 평범한 것 그자체로서 발전이 없이 보편적으로 지내다가 56세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을 하고 비정상의 오행이 있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두 분은 생일지의 액(厄)로 타향살이에 이사하는 일이 잦고 부부궁이 절지(絶地)로 고생(苦生)수가 있으므로 주말부부로 지내는 것도 액을 푸는 방법이긴 하겠으나 재혼지명(再婚之命)으로 자칫 첫 결혼은 실패수가 따르므로 나이차가 있는 연상을 만나도록 하면 어떨까요? 2015년은 지출도 많아지게 되니 금전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칼럼에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illegible] 김학수 인생상담 [illegible]

쥐 48년생 배우자 눈치 적당히 보라. 60년생 꿈꾸던 일은 기회가 온다. 72년생 나긋했던 일은 물건을 켜지니 조심~ 84년생 잘 될 리던 일은 벽에 부딪친다.

소 49년생 집안에 훈풍이 분다. 61년생 힘이 들어도 감수는 피하라. 73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85년생 엉큼한 사람이 접근하니 경계할 것.

호랑이 50년생 당장 성과 없어도 노력하라. 62년생 마음먹은 일 시행하면 좋다. 74년생 나무 벤 자리에 새싹 자란다. 86년생 실수는 인정하고 위장하지 말라.

토끼 51년생 고장 난 저 물고 길 떠난 격이다. 63년생 오늘보다 내일을 꿈꿔라. 75년생 엉망진창 머리는 정리가 된다. 87년생 뜻있는 일을 하려면 큰 꿈을 각오하라.

용 52년생 외통수에 몰리지 않도록~ 64년생 생각 바꾸면 새 길 열린다. 76년생 견제하는 사람이 많으니 더 겸손할 것. 88년생 불리한 국면은 반전된다.

뱀 53년생 단단한 마음은 흔들린다. 65년생 마음으로 장사하는 법 배워라. 77년생 꼼수 부리면 혹독한 대가 치른다. 89년생 상사 때문에 괴로운 하루~

말 42년생 귀인이 오니 잘 모셔라. 54년생 배우자 장점만 보이 유쾌하다. 66년생 지나친 양보는 독이 될 수도. 78년생 분명한 대책은 화를 부른다.

양 43년생 집안일은 다경이 된다. 55년생 생각도 못한 행운 어리둥절~ 67년생 투자한 곳에서 수익이 솔솔하다. 79년생 빛나는 성과에 웃음꽃 활짝~

원숭이 44년생 말이 꼬여서 다시 원점으로~ 56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생긴다. 68년생 논란이 많은 일에선 발을 빼라. 80년생 심사 칭찬에 출근길이 즐겁다.

닭 45년생 적당한 도전정신 필요하다. 57년생 결격사유가 있는 일은 포기하라. 69년생 속내 털어 드러내면 손해 따른다. 81년생 항상은 약간 회계투기 각오하라.

개 46년생 배우자 세상에 반하구나. 58년생 자식이 꽉주면 일는 게 많다. 70년생 꿈이 쑥쑥 자라 뒤따름이 절로~ 82년생 박수갈채 받을 일이 생긴다.

돼지 47년생 투자 때 놓치면 손해다. 59년생 심심할 정도로 편안한 하루~ 71년생 부담감 털어내어 뜻을 이룬다. 83년생 낯선 이성과 시비될 조심할 것.

존 래스터, MLB 역대 최대 계약금

3000만 달러… 시카고 컵스와 6년 1억5500만 달러

미국프로야구(MLB)에서 올해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 중 한 명으로 꼽힌 좌완 투수 존 레스터(30)가 시카고 컵스와 역대 최대 계약금으로 계약했다.

AP통신은 계약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레스터가 계약금으로만 3000만 달러(한화 약 330억원)를 받는다고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레스터는 지난 9일 컵스와 계약금을 포함해 6년간 총액 1억5500만 달러에 장기 계약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년 계약 시 선수나 구단 모두 평균 연봉을 올려 받는 것을 선호하지 고액의 계약금은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 1월 LA 다저스와 7년간 2억1500만 달러로 역대 빅리그 투수 최고 몸값에 연장 계약한 클레이턴 커쇼는 총액 중 1800만 달러를 계약금으로 받았다. 전체 총액에서 뒤지는 레스터가 커쇼보다 많은 계약금을 받은 것이다.

레스터는 계약금 3000만 달러의 절반인 1500만 달러를 내년 4월 1일까지 받고 나머지 절반은 2020년까지 세 차례에 나눠 받게 된다. 아울러 계약 7년째인 2021년의 옵션을 더하면 최대 1억7000만 달러까지 받도록 계약해 레스터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됐다.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계약한 투수 존 레스터 /AP뉴시스

종전 MLB 최대 계약금은 외야수 버넌 웰스(현 뉴욕양키스)가 지난 2008년 7년간 1억2600만 달러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하며 받은 2550만 달러다.

레스터는 2006년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9시즌 동안 통산 116승 67패에 평균자책점 3.58을 올렸다. 올해는 보스턴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서 16승 11패, 평균자책점 2.46을 기록했다.

/정책철기자 kimc0834@metroseoul.co.kr

김광현·양현종, 진화해야 재도전 가능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SK 투수 김광현이 샌디에이고와 협상에 실패해 메이저리그 진출이 좌절됐다. 포스팅 최고액 200만 달러가 나오면서 성사가 불안했다. 보직, 금액 등 조건에서 의견이 맞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앞서 KIA 구단은 투수 양현종 포스팅 결과 150만 달러가 나오자 포스팅을 거부했다.

두 투수의 메이저리그행 좌절은 한국야구의 현주소를 담고 있다. 이들은 팀내 1선발이자 국가대표 간판투수였다. 그럼에도 미국 구단들은 두 투수에게 높은 평점을 매기지 않았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메이저리그 선발투수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발투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스피드, 제구력, 변화구, 정신력, 체력(부상 경력 포함 내구성) 등 다섯 가지로 꼽 수 있다. LA 다저스 류현진은 국내에서는 5개의 항목을 모두 갖춘 완벽한 투수였다. 그러나 류현진은 미국에서는 강속구 보다는 기교파 투수로 분류된다.

더욱이 류현진은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모든 타자들 상대로 전력투구를 한다. 세계 최고의 타자들을 잡기 위해 1구 1구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그러나 몸이 배겨나지 못했다. 지난 2년 동안 세 번의 부상으로 도졌다. 지난 2년 동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내구성이 걱정될 정도로 류현진도 힘겹게 버티는 곳이 메이저리그이다.

한국투수들에 비해 일본투수들이 포스팅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5개 항목 모두 수준급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제구력과 변화구 구사능력은 으뜸으로 쳐주어 높은 몸값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도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광현과 양현종은 재도전 의지를 밝혔다. 그들에게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는 분명하다. 제구력과 변화구, 내구성을 입증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2년 동안 두 투수의 노력과 진화를 지켜보는 일도 흥미로울 것 같다.

/OSEN 야구전문기자

기성용 풀타임에도 스완지시티 2연패

토트넘 상대로 1-2 패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스완지시티에서 활약하는 기성용(25·사진)의 풀타임 활약도 팀의 연패를 막을 수는 없었다.

기성용은 15일(한국시간) 웨일스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2014-2015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지난 3월 퀸스파크 레인저스와의 14라운드에서 골을 터뜨린 기성용은 이날 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지 못했다.

스완지시티는 1-1로 맞선 후반 44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에게 결승골을 허용했다. 토트넘에 1-2로 패하면서 15라운드 웨스트햄전에 이어 2연패를 당했다.

토트넘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승세를 잡았다. 전반 4분 토트넘의 해리 케인이 선제골을 넣었다. 에릭센이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케인이 헤딩으로 마무리했다.

스완지시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윌프리드 보니가 전반 9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오른발 중거리슛을 날렸고 전반 25분에는 문전에서 절호의 기회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상대 골키퍼 위고 요리스 앞에서 골문은 번번이 막혔다.

마침내 후반 3분 보니가 골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웨인 라우틀리지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넬리슛으로 연결한 보니는 공이 상대 선수를 맞고 나오자 재차 오른발로 밀어넣어 골을 성공시켰다.

기성용도 몸활약을 펼쳤다. 후반 6분 상대 선수와 볼을 다투다 거친 파울로 경고를 받은 그는 후반 15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헤딩슛을 시도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은 골대 왼쪽으로 벗나갔다.

후반 들어 우세한 분위기를 보이던 스완지시티는 역전골을 뽑아내지 못했고 후반 종료 직전 에릭센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결국 패배했다.

/임정호기자 so anic@

맨유 파죽지세… 6연승

리버풀에 3-0 완승 · 골키퍼 데 헤아 선방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리버풀에 3-0으로 완승하며 6연승을 이어갔다.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의 선방이 빛났다.

맨유는 15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퍼드에서 열린 2014-2015 정규리그 16라운드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웨인 루니·후안 마타·로빈 반 페르시의 릴레이골에 힘입어 3-0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맨유는 6연승을 기록했다.

특히 맨유의 골키퍼 데 헤아는 리버풀이 시도한 9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막으며 승리의 숨은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반 11분 맨유의 데 헤아는 리버풀의 공격수 라힘 스털링의 위력적인 슈팅을 선방으로 막았다. 1분 뒤 이어진 공격 상황에서 안토니오 발렌시아의 패스를 받은 루니의 첫승골이 터지면서 승세를 잡았다.

이어 23분에도 데 헤아는 스털링의 슈팅을 슈퍼세이브로 막아내며 맨유 수비진의 허술한 방어를 온몸으로 지켜냈다. 맨유는 전반 40분 반 페르시의 크로스에 이은 마타의 헤딩 추가골로 승리를 예감했다.

2014-2015 정규리그 16라운드 맨유와 리버풀의 경기에서 리버풀의 마리오 발로텔리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AP·뉴시스

후반에도 데 헤아는 골문을 든든히 지켰다. 후반 22분 리버풀의 공격수 마리오 발로텔리의 슈팅을 데 헤아의 선방으로 저지한 맨유는 후반 26분 반 페르시가 마타의 도움을 받아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왼발로 쐐기골을 꽂으며 승리를 결정했다.

/장윤호기자

프로배구 전적 15일

인삼공사	1	3	도로공사
삼성화재	2	3	OK저축은행

프로농구 전적 15일

오리온스	17	14	26	22	79
모비스	17	6	20	27	70
신한은행	25	12	20	15	72
하나외환	15	20	17	12	64

HNT 하나투어리스트
상담문의 1566-0034